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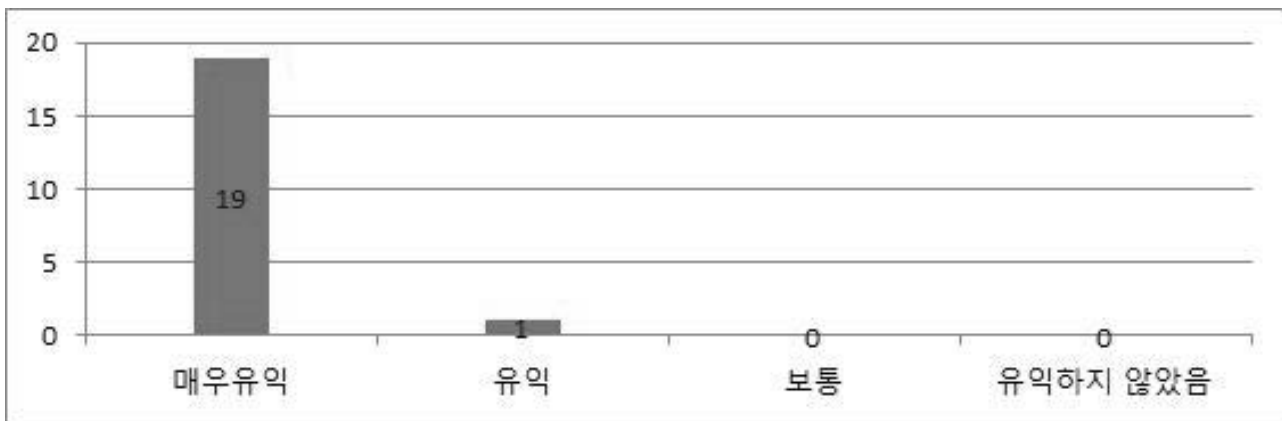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앙케이트 결과**

(사) 한일경제협회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앙케이트 결과

1. 조사기간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일 (5월 16일 ~ 17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조사 및 사전 서면 인터뷰
3. 조사대상 : 한국측 참가자 (164명)
4. 응답자수 : 52명 (서면 인터뷰 32명 포함)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포스트 코로나, 한일 신시대를 맞아, 양국의 협력 강화 분위기를 실감하였다.
- 한일 양국 기업 동향과 미래 산업 방향 그리고, 협력에 관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픈이노베이션의 상호 교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였다.
- 최근 있었던 국제관계 변동과 한일 관계 변화와 그 미래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2)
- 한일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학생의 위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현안논의, 공동사업, FTA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였다.(2)
- 산업의 흐름, 한일교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발표자료가 매우 구체적이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그린 이노베이션 경험 등 매우 유익하고 충실한 발표 내용이였다. (2)
- 한일 경제 협력의 여러 방안을 숙지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 한일경제, 산업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교류의 필요성을 서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일협력을 위한 많은 유익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고 생각한다.
- 한일간 미래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좋았다.
- 세계화의 일환은 가까운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회의인 것 같다.

■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의견 없음.

■ 평가의견

- 회복된 한일경제 관계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경제인들의 협력과 공동연구 및 투자 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 모든 분의 발표 내용이 매우 유익하였다.
- 한일 에코시스템 교류가 절실하며, 한일경제 연계의 힌트를 감지하였다.
-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테마에 대한 발표가 향후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매우 유익한 회의였다.
- 좋은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참가자 대부분 모두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였다고 생각한다.
- 준비를 워낙 잘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
- 한일 양국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주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 학술회의 형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 함께 현실적인 부분의 접근과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제언 건의

- 협회 활동 일반경과 보고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 한일 양국의 새로운 기업대표,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초청되었으면 좋겠다.
- 한일 FTA추진, RCEP 공동추진, 공동시장 개척, 청년교류의 구체화 추진을 요망한다.
- 다양한 한일협력의 실사례를 소개하는 발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한중일, 한황해교류회(경제)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경제교류회 개최를 기대한다.

- 질의응답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참석자들이 분야별 전문가로서 그들의 의견도 매우 귀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바이오 기업의 협력 사례 및 교류방법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
- 민간교류 및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한일 양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양국 상호 간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일간 경제인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어 새로운 제안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매우 유익한 시간이였다.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의 경제인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 사전조사(서면 인터뷰) 내용

- 한일 인적교류를 현재 실행 중인 고교생 교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생, 대학원생, 학회 (교수 및 연구원) 차원의 교류 확대를 요망한다.
-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반도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공동 대응 연구회 구성이 필요하다.
-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경영, 사회, 문화 등 갈등 사안의 해결책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 민간, 업계, 학계 등 연합 시스템 구성하여 초당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일, 일한 관계는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라도 한일, 일한 경제 협력에 절대적으로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추진을 제안한다.
-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들간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함이 중요하다. 즉,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event를 상호간에 개최하여 소통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일 양국 산업발전이 한계에 이른 이상 양국 협력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필요하며, 해외공단 개발을 통한 경제활력 모색과 수익 창출 지역 확보가 필요하다.
- 양국 기업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물류 유통망 확보, 기업간 상시 미세정보 교류시스템구축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등 개선을 제안한다.
-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유사 업종 기업들과의 기술교류, 합작법인 설립 등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하며, 수소 등 미

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공동협력 추진, 탄소중립과 수소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등을 제안한다.

- 한일이 협력하면, 글로벌시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 앞으로는 양국이 선의의 경쟁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한다.
- 양국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의 방도에 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 양자간 경제 관계의 한층 확대와 강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한일 경제 관계가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일 기업을 정점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 한일은 기술 경제적인 선진 인접 글로벌 국가로서 교육 및 환경 개발, 개선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 및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변화에 실제적인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공급망의 재편 및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단순한 제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서 IT, AI, 2차전지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
- 세계는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지만, 세계 속의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므로 다자외교의 최고수가되어야 할 것으로, 세계 최고 두뇌 한민족으로 자부심을 갖고, 한국땅에 가두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서 마음껏 자기 고유능력을 발휘하도록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새로운 한일관계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지속 발전 및 경제인들만이라도 과거 반성, 미래지향 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동성명에 한일기업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증진이 양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확대,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한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화, 지역 창생 등 각종 한일협력 사업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CPTPP 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2)
- RCEP 시장 한일 양국 공동진출과 한국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 모범사례로 일본 및 RCEP 시장 공유, 한일 양자FTA추진 등이 필요하다.
- FTA수출컨설팅협의회는 일본과의 협력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온 과거의 한일 관계를 회고해 보고,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민족 감정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협력, 교류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만 아니

라 민간교류 특히, 대학생 등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부산의 영남과 후쿠오카의 큐슈를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만들고자 한다. 실현의 첫 방안으로 언론사와 상사의 기능과 역할을 합친 영남큐슈비즈니스센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시민들과 일본인들이 수시로 만나서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BUSANJAPANCLUB의 줄인 말의 BUJACLUb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면 한다.
- 한일 산업 간 기술 교류회 또는 지역(경제권역) 간 비즈니스 교류회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양국 경제 발전, 산업 활성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 및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변화에 실제적인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공급망의 재편 및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경제교류의 활성화 기대한다.
- 작년, 최태원 SK회장이 제안했던 한일 IT인력 관련 박람회를 개최, 상호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 한일간 업체방문 희망, 단순한 제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서 IT, AI, 2차전지 분야 등, 미래산업분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이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양국이 선의의 경쟁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 보다 활발한 인적교류(취업, 연수 등)를 통한 미래 인재의 인식 개선 도모, 미래를 향해 한일이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하면 더 큰 파워가 될 것 같다.
- 한일 양국의 유망 협력 분야는 이미 언론이나 유력인들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나, 모두 총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총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민관학 스터디그룹 구성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25년 오사카 EXPO와 2030년 부산 EXPO(유치를 전제로)성공을 위하여 한일 교류정상화 분위기와 4차산업 AI시대 트렌드에 맞는 한일서틀 AI EXPO를 개최하기를 제안한다.
- 기대 효과는 (1) 양국EXPO홍보 효과 증대(국민참여의식고취), (2)상호 국민간의 돈독한 유대감 형성 (3) AI산업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 추진 방안으로는 (1) 2023년 하반기 서울과 도쿄 (2) 2024년 상반기 부산과 오사카 (3)2024년 하반기 대구와 나고야 이러한 방법으로 반도체, ICT, E-commerce, 바이오, 물류 등에 AI 연계한 MIDIMUM SIZE EXPO를 개최하여 오사카, 부산 EXPO가 성공하도록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제안한다.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사) 한일경제협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원원전략)

2023년 5월 17일

강연자: 김 천 주



① 강사 및 회사소개

② 신뢰 경영

③ 비즈니스 성공 열쇠

1

강사소개

강사 소개



김 천 주(金 天 柱)

1957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82. 7 롯데그룹 공채 8기 입사
 1982 ~ 1993 롯데캐논 기술과, 전산과, 생산관리 과장
 1993 ~ 2001 롯데캐논 기획실장/해외사업 부장
 2002 ~ 2006 롯데캐논 기획/해외사업 이사
 2006 ~ 2007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영업본부장
 2008 ~ 2020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대표이사
 2020 ~ 2022 캐논코리아 고문
 2022~ 한국 국제규격 인증원 대표이사
 (ISO심사/인증/교육)

※2015~2022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2015~2020 한국AEO진흥협회 회장
 201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

회사 소개



롯데

식품
유통
서비스/관광
화학/제조
건설
금융

캐논

사무기기
카메라
산업기기
광학기기
의료기기



Canon
CANON KOREA INC.

롯데

캐논

1985년, 롯데 : 캐논 = 50 : 50 합작회사 롯데캐논 설립

2006년, 캐논코리아 비스니스 솔루션 (CKBS) 사명변경

2021년, 카메라 부문 합병한 캐논 코리아 (CKR) 사명변경

캐논 코리아 소개

설립연도

1985년 5월 10일

자본

89.25억원
(롯데:캐논=50:50)



서울 본사 (삼성동)

경영실적

매출 7,217억원
내수 4,349억원
수출 2,868억원
영업이익 248억원
(2022년 연간기준)

종업원

전체 1,368명
관리: 115명
영업/기술: 687명
개발/생산: 566명
(2022년 12월 기준)



공장/연구소 (안산)

거점

11개 지사
2센터 4물류거점
영업파트너 597개사
생산파트너 31개사
자회사 (엔젤 워드)
※장애인 표준사업장
(2022년 12월기준)

제품 포트폴리오

사무기기



사무용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상업인쇄기

카메라



VR렌즈



DSLR 카메라



파워샷픽



방송용 렌즈

의료기기



안과장비



AED



디지털 X-ray 판넬

산업설비



2차전자 자동화 생산설비



자동차 부품
자동화생산설비



OLED 생산설비



OLED 증착기

✓ 한국 안산공장 생산

2

신뢰 경영



신뢰관계의 시작

- ✓ 1974년, 롯데산업에서 기계식 복사기 생산 시작
▶ 1978년, 기술제휴 방식으로 전자식 복사기 생산

1978년 수입선다변화 정책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품목을 정해놓고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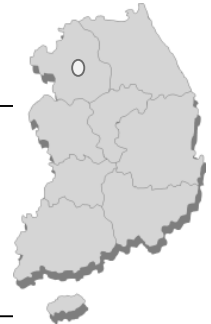
“50매기 이하 수입 금지”

기회



안산공장 FAX 생산의 시작

- ① 고품질의 노동력
- ② 높은 기술력/생산성



일본 본사와 신뢰관계의 시작점

위기와 극복

위기1



▲Canon Hi-Tech Thailand 본사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노조문제 발생

- 한국 정세 불안정
- 1990년, 캐논 태국공장 설립

*Canon Hi-Tech (Thailand)

1999년, 수입선다변화 정책 ‘폐지’

- 50매기 수입 자유화
- 중국 심천으로 복사기 신기종 생산 이전



한국 생산물량 감소 & 공장 폐쇄 위기

*당시 동종업계는 해외공장이전

위기와 극복

위기2



▲Canon GP400 모델

1997년 IMF 및 경제 회복 이후,
일본 토리데(取手)공장의 저가 생산기인 디지털
복사기 후속기를안산 공장에서 생산 준비를 하는 도중

▶ 2001년, 중국 소주 공장 설립

*Canon (Suzhou) Co., Ltd.

*세계 최대 복사기 공장

위기3

1990년대 , 일본 주재원과의 갈등

-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
- 한국에 대한 신뢰도 ↓

▶ 1998년 일본 공동대표/경리 철수
한국인 사장 중심 경영체제 전환



▲캐논 코리아 안산공장

위기와 극복

NLC 프로젝트

시작기부터 완제품을 안산에서 생산
개발~생산을 위탁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 COST ↓

*NLC(New Lotte Canon) 뉴롯데캐논

캐논 코리아만의 강점

- ① 위치
- ② 언어
- ③ 높은 품질
- ④ 생산력/수익률 ↑
- ⑤ 신속한 대응

LOTTE Canon

1985년

단순 조립
(일부 국산화)

2004년

개발~생산

Canon
CANON KOREA BUSINESS SOLUTIONS INC.

2006년

산업설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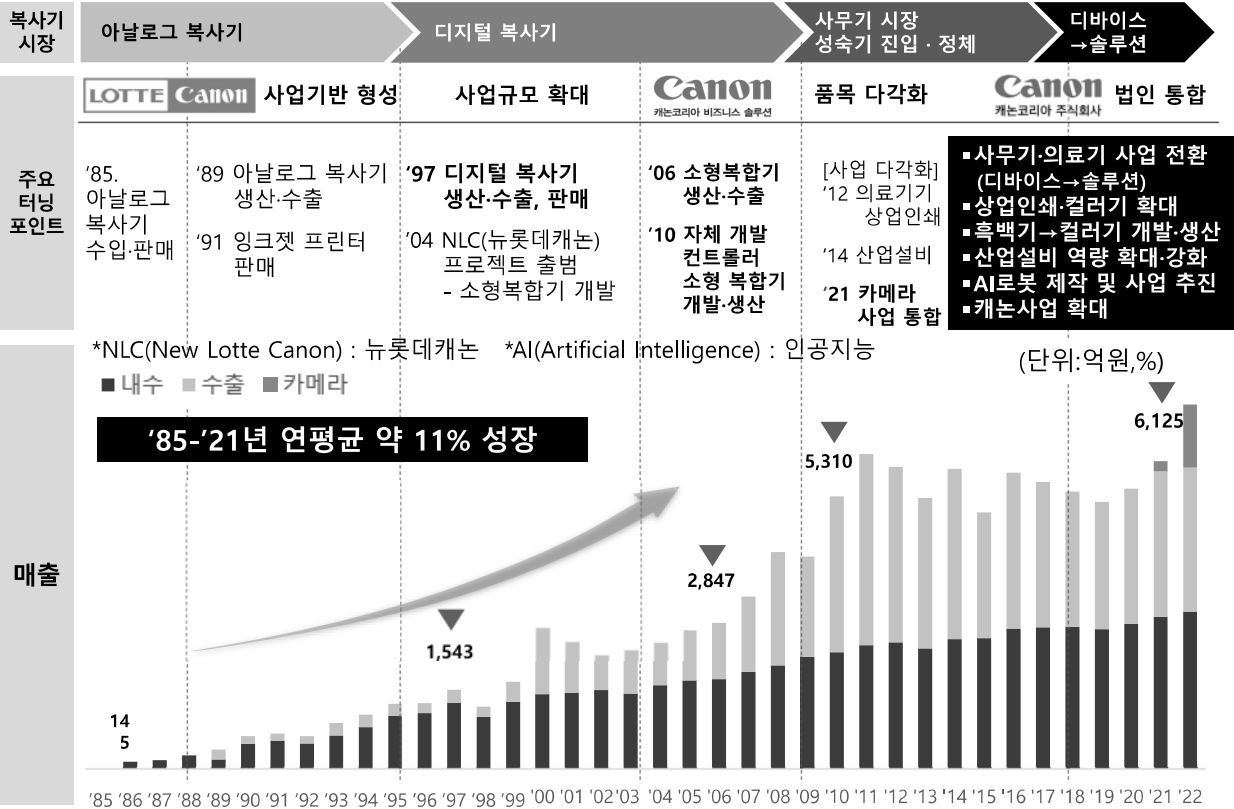
Canon
CANON KOREA INC.

2020년

카메라까지 합병

한국인만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합작기업

Canon Korea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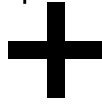
3

비즈니스 성공열쇠

비즈니스 성공 열쇠

- 장기적 시각에서의 투자/협업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인재활용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 경영참여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재원



일본
본사와의
신뢰관계



- 캐논: 제품과 기술 제공
롯데: 경영과 인재양성 집중

미션

사무 혁신, 삶의 안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삶에 만족을 제공한다

비전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비즈니스 성공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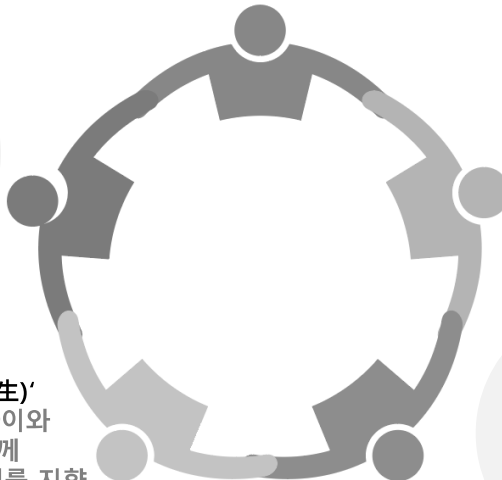
중장기적 관점으로 현지 시장 & 사람을 이해
현지 시장에 대한 사회공헌

Canon

캐논
위기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

共生

캐논의 기업이념인 '공생(共生)'
문화, 습관, 언어, 민족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



LOTTE

롯데
투명한 경영
캐논의 신뢰得

직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직원

감사합니다.



한일 에코시스템 교류를 위해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가와다 미오 이사

2023년 5월 17일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오늘의 강연 내용

1.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2.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3.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4. JETRO 활동

강사 약력

일본무역기구(JETRO)

가와다 미오 이사



■ 약력

2015년 7월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서비스정책과 해외전개지원실장

2017년 7월 일본무역진흥기구 본부 대일투자부 대일투자과장

2019년 7월 일본무역진흥기구 본부 대일투자부장

2022년 10월부터 현직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3

오늘의 강연 내용

1.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2.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3.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4. JETRO 활동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4

1 |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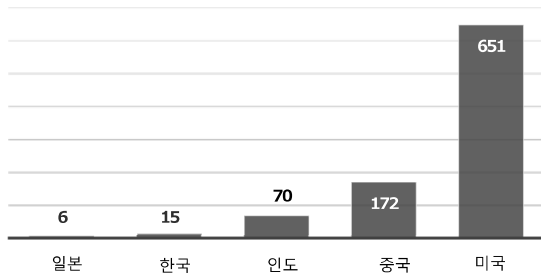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①)

- 한국도 일본도 에코시스템 랭킹은 낮지 않으나 벤처 투자액, 유니콘 기업 수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어 글로벌 존재감이 약하다.

에코시스템 랭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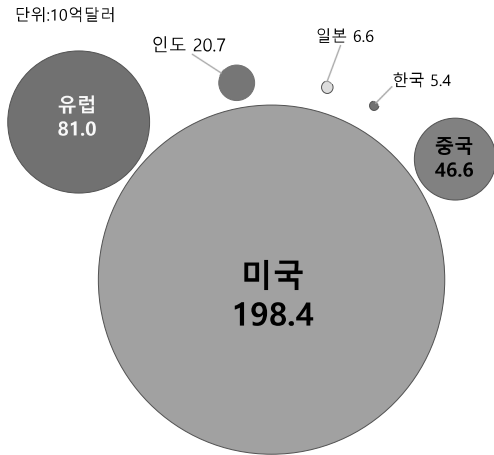
	StartupBlink (2022)	Startup Genome (2021)
TOKYO	15	12
SEOUL	25	10

유니콘 (2022년 12월 현재)



(출처) CBInsights

벤처 투자액 (2022년)



(출처) 미국, 유럽, 중국, 인도: CBINSIGHTS State of Ventures, 일본: INITIAL Japan Startup Finance 2022(2023년 1월 19일 현재) 2023년 2월 20일자 환율로 환산, 한국: 2022년 벤처투자동향(2023년 1월 30일) 중소기업 벤처부 2023년 2월 20일자 환율로 환산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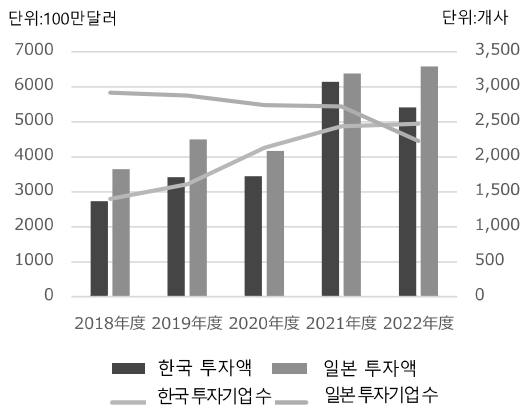
5

1 |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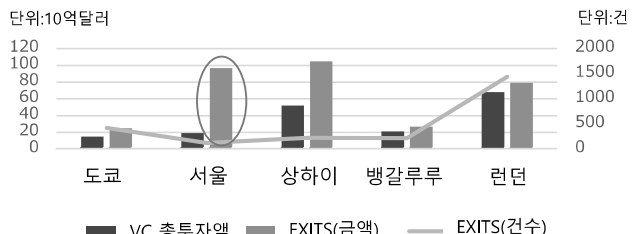
- GDP 및 인구 규모로는 일본과 한국이 2:1 정도인데 투자액, 투자건수 등의 규모는 거의 동일. 한편, 투자에 대한 리턴은 한국이 더 크다.
- 창업 수는 한국이 훨씬 많고 기업가정신도 한국이 강하다.

최근 5년간 벤처 투자 현황



(출처)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벤처투자동향(2023년 1월 30일) 1원 = 0.0008달러 2023년 2월 20일 0:00JST) 일본: INITIAL(2023년 1월 19일 현재) 1엔 = 0.0075달러(2023년 2월 20일 0:00JST)

2017~2021년 VC 투자총액, Exits(금액, 건수)



(출처) Startup Genome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2」

창업 수(2020년)



(출처)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보험신규적용사업소 수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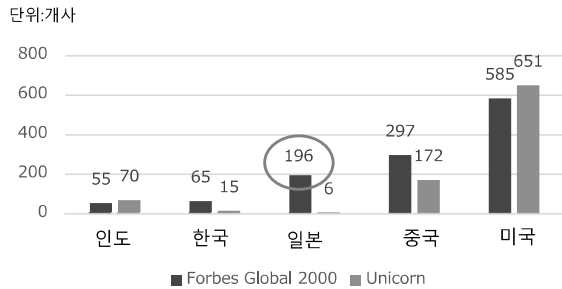
6

1 |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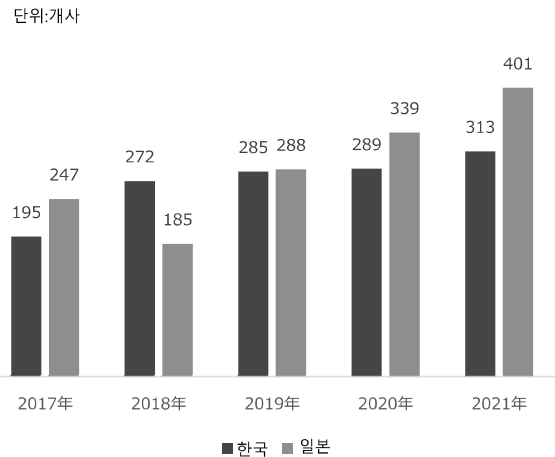
- 한국도 일본도 유니콘 기업수 대비 대기업이 많다. 일본은 벤처투자자에 차지하는 CVC 비중이 크다.
- 한일 모두 대학발 벤처들이 육성 성장하고 있다.

Forbes Global 2000 기업 수와 유니콘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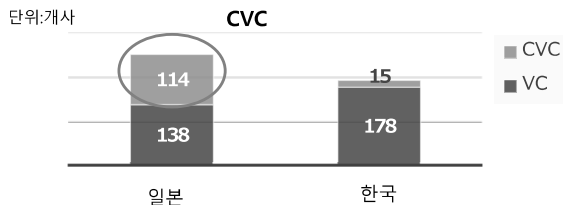


(출처) Forbes Global 2000 (2022), CBInsights

대학발 스타트업 기업



(출처) 경제산업성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동향」(2023년 3월), 한국연구재단, 「2021년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2022년 12월



(출처) 한국: KVCA 등록기업, 일본:JVCA 등록기업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7

1 |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 지구적 과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와 국제질서 역시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큰 기로에 서 있다.
- 인구 감소와 낮은 식량자급률 등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은 오픈이노베이션 활발화를 통해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8

오늘의 강연 내용

1.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2.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3.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4. JETRO 활동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9

2 |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 일본 대기업과 한국 스타트업의 협업사례

Urbanbase×니토리(NITORI)

개요:

- 일본 니토리(NITORI)는 2021년 한국 SU기업의 SaaS형 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공간 인테리어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전개.
- 동사의 AI에 의한 3D 도면제작기술 및 AR기술은 부동산 판매, 홈쇼핑, 인테리어업체, 가전판매점 등에서 새로운 영업 톨로도 이용 가능.
- 한국 LG전자와 Casamia, ILOOM 등 대형 제조사에도 시스템 제공.
- ResorTech Expo 2021 in Okinawa에서 61개 출품기업 중 뛰어난 기술을 표창하는 ResorTech Expo Award에서 대상인 「종합그랑프리」를 수상.
- Hanhwa hotels & resorts로부터 약 13억엔의 전략적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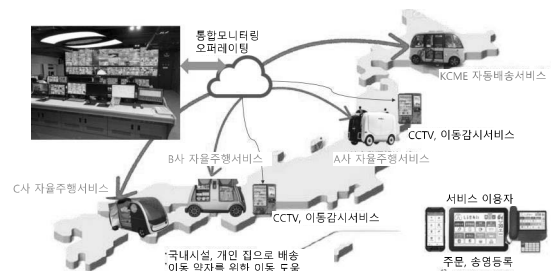


(출처) 각종 보도 및 기업 히어링 등의 내용을 JETRO가 정리. 이미지는 Urbanbase 제공.

TeamGRIT×교세라 미라이 인비전

개요:

- 일본 교세라가 2022년 한국 SU기업의 초저지연 실시간 데이터 송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 한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으로 선정, 자금조달(Pre-A). 한국 SU의 해외진출지원기관(Born2Global)이 지원하여 2021년에 일본법인(주식회사R2)을 설립.
- 동사는 통신단말 처리성능 및 통신환경에 맞춘 영상 처리와 송수신 레이트 등을 최적화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며 초저지연 영상 송수신 및 원격조정을 실현.



(출처) 각종 보도 및 기업 히어링 등의 내용을 JETRO가 정리. 이미지는 R2 제공.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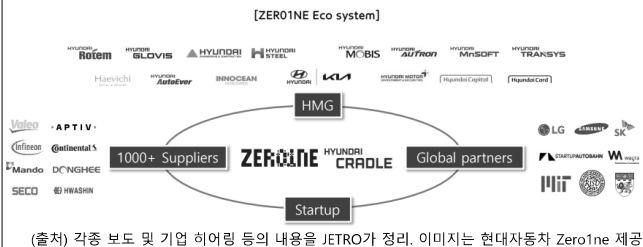
2 |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 한국 대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 한국 엑셀레이터의 한국SU 일본진출 지원

Hyundai Motor Group - ZERO1NE / CRADLE

개요:

- 현대자동차그룹은 ZERO1NE 플랫폼을 통해 사내 SU기업 육성, 그룹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글로벌 SU기업 투자 등을 추진 중.
- 글로벌혁신거점(HYUNDAI CRADLE)을 해외 5개소 (실리콘 밸리, 텔아비브, 베를린, 베이징,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 ZERO1NE Fund를 활용하여 신사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SU기업에 투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니즈를 수렴하여 연 2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관심분야인 AI, Smart Factory, Robotics, Mobility, Energy 등.



「Shinhan Futures Lab」신한은행 일본법인에 개설

개요:

- 2015년부터 한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AC/VC 「Shinhan Futures Lab」을 운영 중.
- 신한금융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스타트업과 협업. 현재까지 300개사 이상 육성. 약 70억엔 투자, 186건의 협업 실적.
- 한일 SU・에코시스템 연결과 확장, 동반성장 추구를 위해 2022년 11월초 도쿄에 Shinhan Futures Lab Japan을 개설.
- 한국 SU의 일본진출 지원 및 일본 SU의 발굴・육성・투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오픈형 에코시스템 구축)
- 한국 최초로 한국과 일본의 SU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할 예정.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1

2 |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가능성

-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일본VC, CVC 의견

한국SU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엔터테인먼트 등)에 주목. 스테이지는 주로 시리즈A에서 B를 보고 있다.
한국 SU는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개발자들의 역량은 미국과 견주어보아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다.

최근 일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망시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스테이지와 영역 등을 폭넓게 잡고 있으며 최근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시드 및 얼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은 기계류(기술계, 소부장)분야가 많은 것 같다. 또한 한국은 미용 선진국이라 상품 및 그 마케팅 기법에서 뷰티텍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다.



과거 5년간 한국 SU와 창업자에게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계속 할 계획.

한국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크다. 이 분야는 글로벌화로 인해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한국 창업자들은 한국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스타트업은 좋은 투자처이고 좋은 파트너라 판단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 혹은 기존산업에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면 분야를 불문하고 투자하겠다.
스테이지는 Pre A에서 시리즈 B까지를 중심으로 투자 중.
B2C사업의 경우 인구 차이도 있어 중국과 일본보다 Topline 정체를 빨리 맞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진출・관련사업 확대를 고려하는 케이스가 많다. 따라서 매우 성장성 높은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각 기업 관계자 히어링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2

오늘의 강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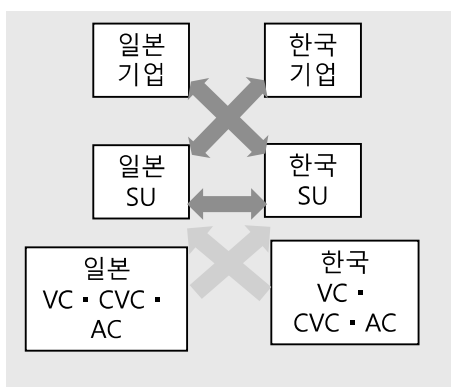
1.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2.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3.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4. JETRO 활동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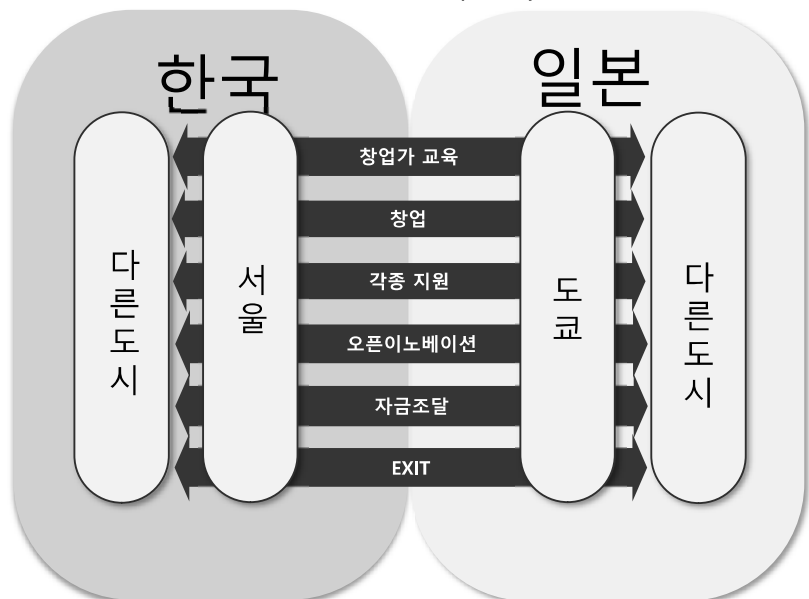
3 |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 한일간 오픈이노베이션에서 한일 에코시스템 교류 강화로 이어간다.
- 서울-도쿄뿐만 아니라 교류를 다른 도시(에코시스템)까지 확장시킨다.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개념도)



에코시스템 교류 (개념도)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4

오늘의 강연 내용

1.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정리
2. 한일 오픈이노베이션 실제 사례
3.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에코시스템 교류로
4. JETRO 활동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5

4 | JETRO 활동

- JETRO: 일본의 무역진흥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 및 아시아지역 등의 경제 및 이와 관련된 여러 사정에 대해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그 성과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이들 지역과의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전

(우리의 지향점)
유대의 힘을 통해 실현하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미션

(우리의 사명)
사람, 기업, 국가와 함께 미답의 분야에 비즈니스의 초석을 다진다

밸류

(우리의 가치관)
《뜻과 열정》
높은 뜻을 내걸고 열정을 품고 즐긴다
《현장중시》
현장을 중시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
《고객지향》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선진성》
선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知)의 추구》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지(知)”를 개척한다
《상호이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한다

전국 도도부현에 51개소



해외사무소 (2021년 3월 현재)

■ 본부: 도쿄, 오사카

55개국 76사무소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6

4 | JETRO 활동

- 2019년~2022년 4년간, 혁신 창출에 공헌하는 외국기업 유치(대일투자),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일본계 SU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등을 진행.
- 2023년도부터 이들 3가지 활동을 통합하여 일체적으로 실시.

이노베이션부 방향성

「자본·기술·인재가 국내외에서 순환하는 **에코시스템 형성, 강화**」를 내걸고 뉴비즈니스 창출, 지역과제 해결, 스타트업의 큰 성장, 해외 에코시스템 지속 강화를 지향하고 대일 투자 유치,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전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해외 에코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등을 일체적으로 실시.
JETRO의 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방 SU 발굴 및 창업가 육성에도 주력.



이노베이션부 설립

대일투자부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 J-Bridge: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스타트업지원과 이노베이션촉진과

- 일본계 SU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 해외 엑셀레이터, VC 등과 협업

이노베이션부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 J-Bridge: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일본계 SU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 해외 에코시스템과 연계 강화
- 창업가 육성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7

4 | JETRO 활동

- 2023년도부터 서울사무소 활동

Next Rise

2023년 6월 1일~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NEXT RISE」(KITA주최)에 일본 최초로 일본 부스를 설치. 일본 SU기업 및 일본 대기업들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이벤트를 진행.

스타트업 기업 개별 지원

지금까지 한국 SU기업의 일본진출(인바운드)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더해 일본 SU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과의 연계 등(아웃바운드) 개별적 지원에도 주력.

기업설명회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주한 일본기업에게 소개하는 장으로 「기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개최 실적: 14회 (2018년~2023년 3월)
등단 한국기업: 26개사
(AI, IoT, 모빌리티, 인증, 드론, 액화수소 등)
참가일본기업 등: 총136개사・단체

에코시스템관계자연락회(가칭) 출범

주한 에코시스템 주요 관련단체・기업과의 연락회를 출범하여 일본측 에코시스템과의 교류 강화에 이바지한다. 2023년 3월에 10개사・단체 실무자에 의한 준비회의를 개최.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

가와다 미오

(서울사무소)



+ 82-739-8657



KOS@jetro.go.jp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41 영종빌딩 3층

세계의
비즈니스관련정보
를 매일 게재!

열람 무료

「비즈니스뉴스」
는 여기서



<https://www.jetro.go.jp/biznews/>

■ ご注意

本日の講演内容、資料は情報提供を目的に作成したものです。主催機関および講師は資料作成にはできる限り正確に記載するよう努力しておりますが、その正確性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本情報の採否はお客様のご判断で行ってください。また、万一不利益を被る事態が生じても主催機関及び講師は責任を負う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ご了承ください。

Copyright © 2023 JETRO. All rights reserved. | 19

한일 간 미래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

2023. 5. 17(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박정규

■ 소개 (주요 경력)

1

KIA Motors
(1993-1998)

차량 양산 실험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Kyoto University
PRECISION ENGINEERING
(1999.4-2002.3, 박사과정)
(2002.4-2006.2, 조교수)

Univ. of Michigan, Ann Arbor
(2003.7-2004.9) Visiting Scholar(교토대학지원)
/반도체 관련 연구



모노즈쿠리 →
한국 소개

LG Electronics
(2006.3-2009.6)

도요타 생산방식 (생산시스템)
LG Chemistry : 배터리 패키징

도요타 제품개발
→ 한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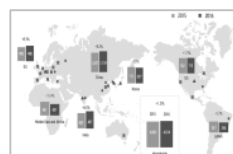


동도요타 (관동자동차) 전임 사장이
직접 도요타 생산방식 지도
→ LG 전자 생산방식 정립

Hyundai Motor Company (2009.-2021)

자동차산업연구소 (2009.6-2015)

- 자동차산업분석 (품질, 생산, 연구개발 분야)
- 모듈러 전략
- 북경현대 생산시스템 (BTO생산시스템) 구축 (Beijing Hyundai Motor Company)



해외공장지원실 (2016.-2018)

생기개발센터
(2019.-2021.3)

2021.3 - Present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Glendale Holding
(Consulting Vice President)
(2021.8 - Present)

Columnist
(Automotive Industry)



도요타 모듈 설계
→ 한국 소개

I. 자동차 산업의 변화 방향

II.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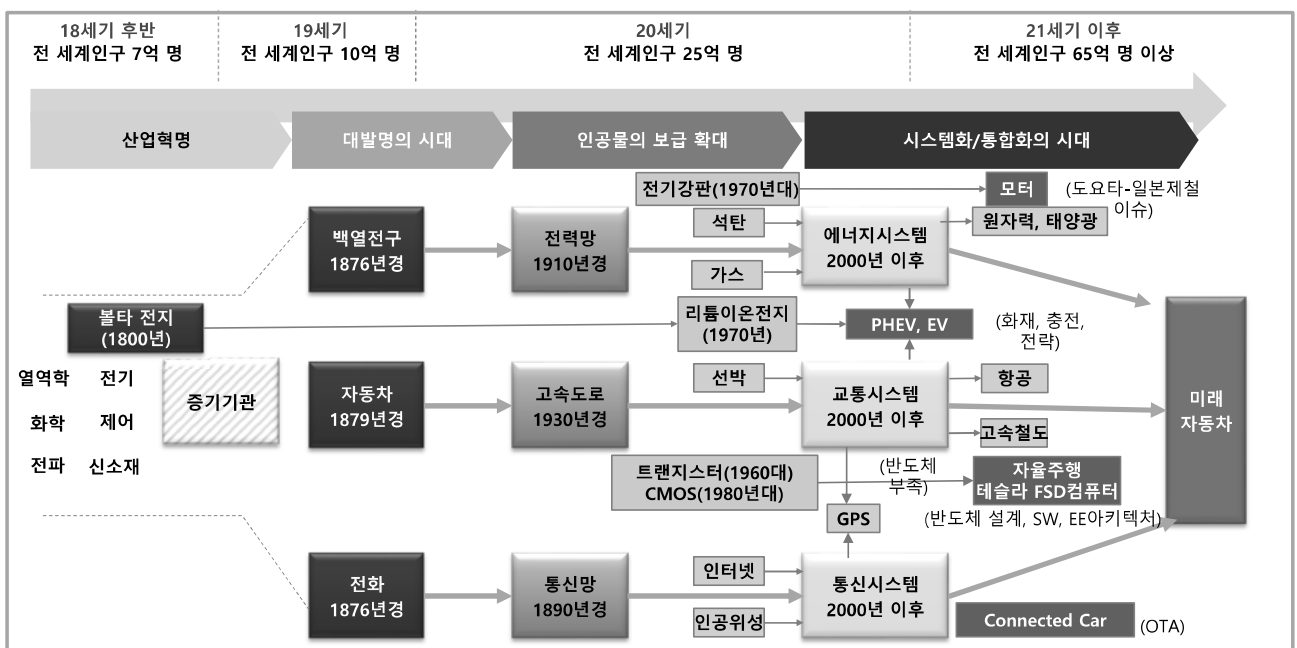
III. 한일 양국간의 경쟁과 협조 방식

IV. 한일-미중간의 제품 아키텍처의 차이

V. 마무리

▣ 자동차 산업의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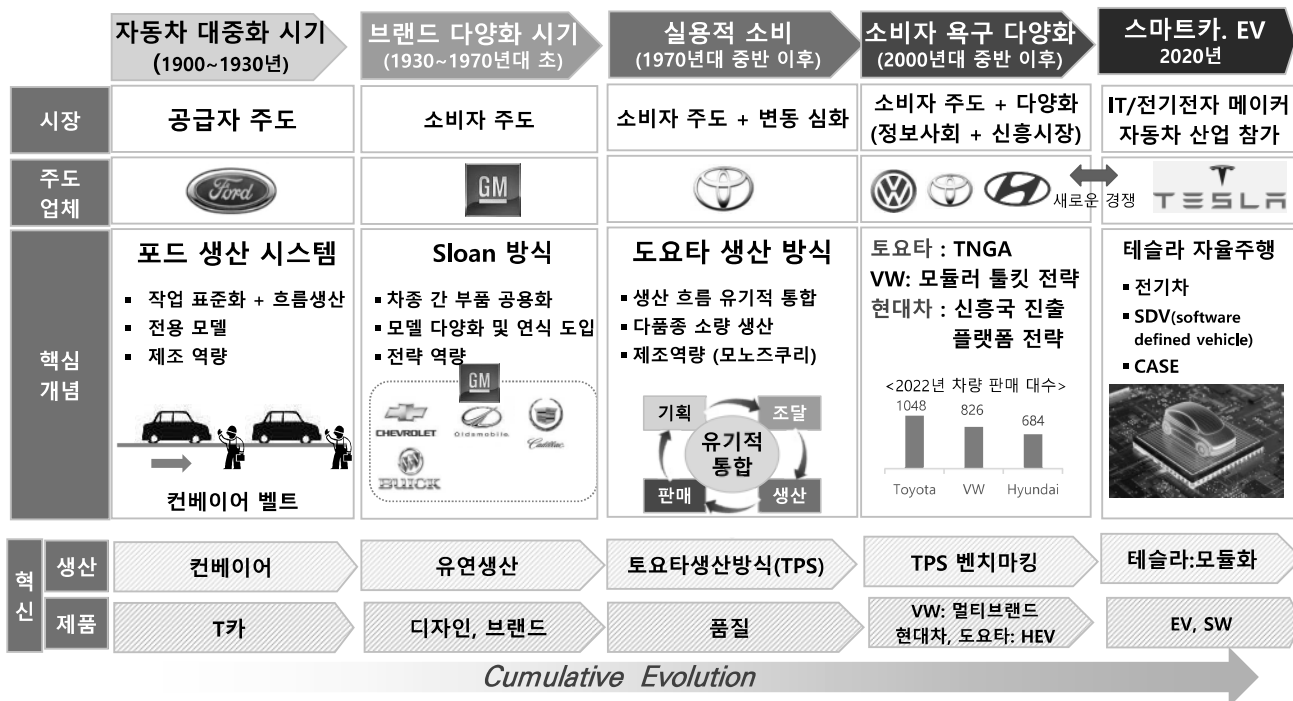
- 전구/전화/자동차라는 근대의 3대 발명품이 시스템화 되어 에너지/통신/교통시스템으로 진화.
- 미래의 자동차는 에너지/통신/교통 시스템가 통합된 형태로 발전



출처 : Engineering Systems: Meeting Human Needs in a Complex Technological World, Daniel Roos, et al., 2016 내용을 기초로 필자 수정

▣ 자동차 산업의 혁신 과정

-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제품의 반복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진화 발전
- 현재 자동차의 전자화/소프트웨어화가 본격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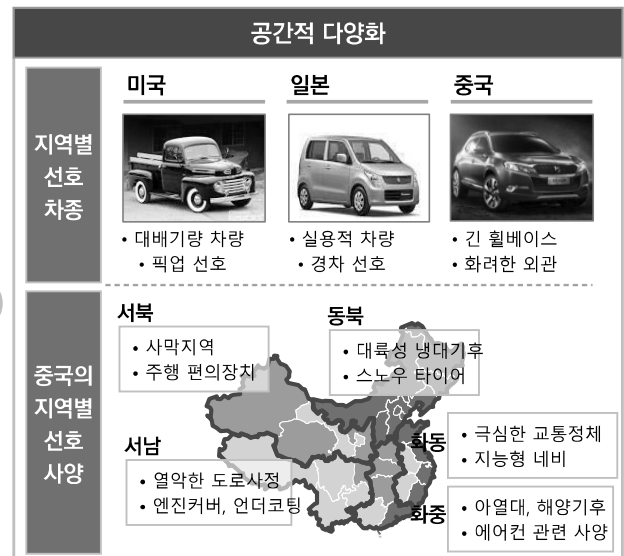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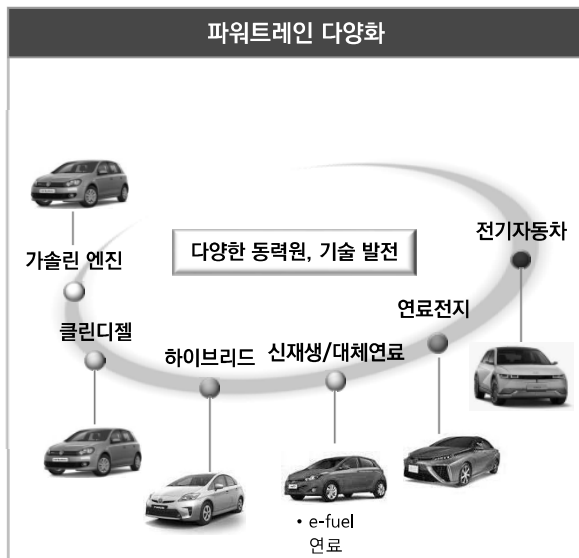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의 지난 20년



자동차 종류의 다양화 6

- 한국/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차종 다양화(동력원 다양화+지역별 사양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 (토요타 1위, 현대차 3위/ 2022년 차량 판매 기준)



테슬라 – 미국 제조업의 스케일 7

-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테슬라는 기존 한국/일본 제조업과 차원을 달리하는 스케일로의 혁신 진행
- 한국/일본 제조업은 새로운 형태의 미국 제조업과 경쟁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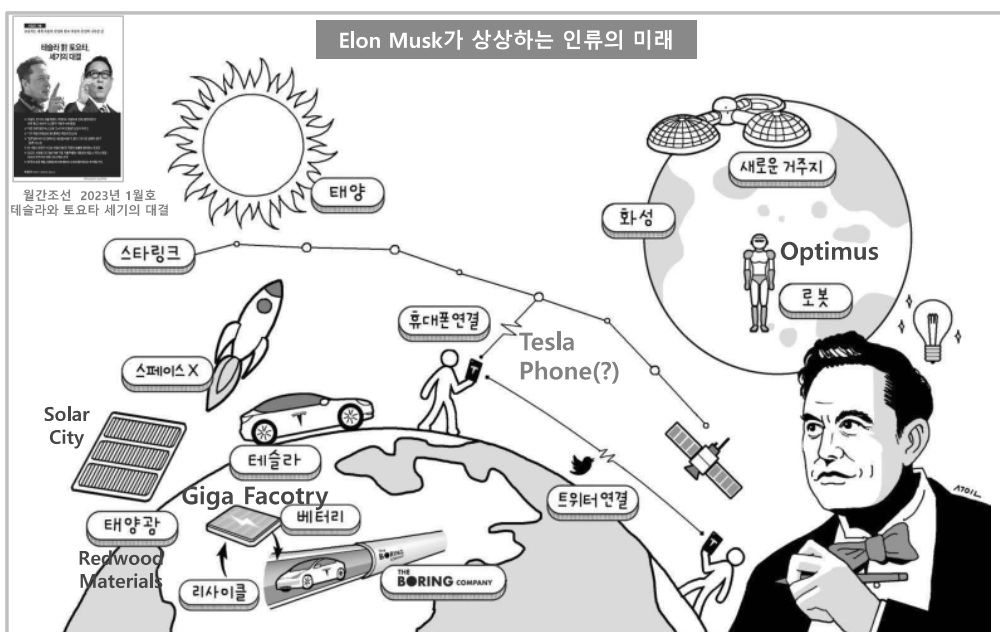


그림 출처: 월간조선 2023년 1월호

콜럼버스 대항해시대



서부 개척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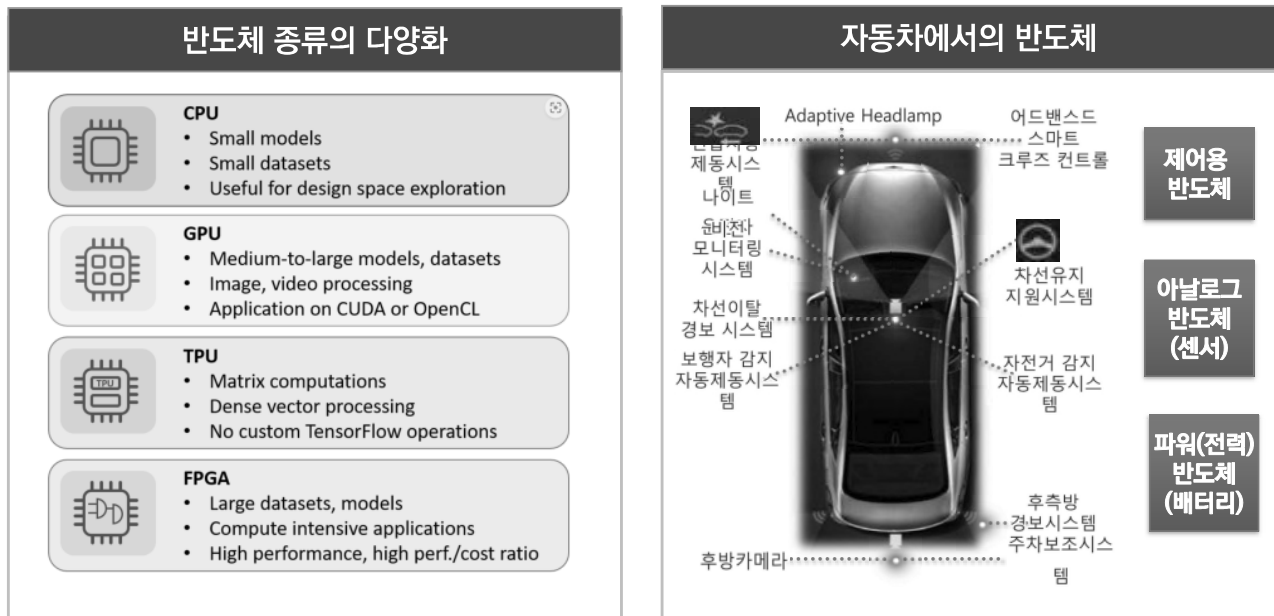


우주 개척 시대



▣ 반도체 종류의 다양화

- 산업의 발전, 반도체의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 반도체의 종류는 점점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도 제어용 반도체(자율주행), 아날로그반도체(센서용), 파워반도체(배터리용) 등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 →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



■ 자동차/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문제(유사성)

-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제품 다양화, 지역 완결형 생산, 경쟁 원리의 변화라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자동차 산업은 지역 완결형 생산과 제품 다양화 경쟁 → 경쟁 원리 변화의 단계



한국/일본 기업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

■ ① 한일간 상호학습 : LG전자/토요타

12

- 과거 LG전자는 토요타 생산방식을 전사적으로 배웠고 직원들이 토요타 공장에서 연수 경험
-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은 과거 현대차 배우기에 열중

LG전자의 토요타 생산 방식 배우기

LG전자 공장 개선 멤버와 조후지오 회장(토요타), 호시노 회장(기후 차체)
LG전자 직원 도요타 그룹 자동차 공장에서 1년간 파견 연수 실시



■ LG전자는 토요타 생산방식을 꾸준히 학습하여 생산성 향상 활동 전개

일본의 현대차 배우기

<2011년 11월 5일
일본 교토대학 심포지움 사진>



現代自動車の成長戦略

- 일본 대학 교수들이 현대자동차의 성장 원인 조사 발표회 → 현대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일본 토요타/닛산/혼다 등 자동차 회사 직원 참가
- 교토, 도쿄에서 심포지엄 실시

■ ② 한일간 상호 활용 :일본통운 한국 진출 사례

13

- 일본통운은 부산 컨테이너 항구를 적극활용하여 지리적인 이점 활용
- 물류 비용 절감하기 위해 더블 넘버 플레이트 사용 (일본측에서 개선 활동 실시)

일본 통운의 부산 활용 사례

일본통운 부산 물류 센터



- 고베 대지진 이전까지 부산항과 고베항은 규모 확대 경쟁
- 고베 대지진 이후 일본은 부산항을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 변경
- 일본 통운은 부산에 글로벌 물류 센터 준공
-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부산에 보관 → 필요에 따라 일본으로 배송

부산과 일본 주요 지역과의 거리



더블 넘버 플레이트 사용 (한국/일본)



- 일본 통운의 화물 트레일러 더블 넘버 플레이트 사용
하여 물류 비용 절감

■ ③ 한일 시장에 진출 : 킥보드 Swing

14

- 일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한국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글로벌 외국 기업이 진출 포기 또는 실패
- 한국 킥보드 시장에서 역량 확보한 스윙이 일본에 진출하여 킥보드 보급 확대

한국 기업의 진출(Swing)



- 2021년 11월 일본 진출
- 한국 시장 : 20만대, SWING 8만대
- 일본 시장 : 5천대, SWING 1.5천대 운영 중



인터뷰 (일본 시장에 대한 견해)

- 한국에서 킥보드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유저가 착하다, 규제가 적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있다는 점이 일본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 ① 일본 유저는 더 착한 것 같다. 조심스럽게 킥보드를 사용해서 일본에서는 4,5년 정도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② 일본도 한국과 같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적고 킥보드 대수 규제가 없다.
- ③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 온 사업 모델이다. 한국과 동일한 비즈니스를 운영 가능하다
- ④ 일본 시장은 내수시장이라 실제 한국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인구가 2배, GDP가 2배라고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의 체감으로는 한국보다 4배 정도 시장이 큰 것 같다.
- ⑤ 일본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 대부분 1년 정도 하다가 포기한다. 하지만, 일단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일본에 뿌리를 내리면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유럽 스타트업 보다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 ④ 한일 Startup의 협업 : SpringCloud(韓) & Tier IV(日)

15

- 한국/일본 자율주행 Startup의 협력 관계 구축하여 연구개발 촉진,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
- 일본의 TIER IV와 한국의 SpringCloud는 23년 4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한일 자율주행 스타트업간의 협조

TIER IV
(일본)

- 2015년 12월 창업
- 대표 : 카토 신페이
- 약 300명(22년 3월), 이미 대만 홍하이(Foxconn)의 전기차 플랫폼 개발 사업 참가
- 글로벌 차량용 Open SW Platform 제공

TIER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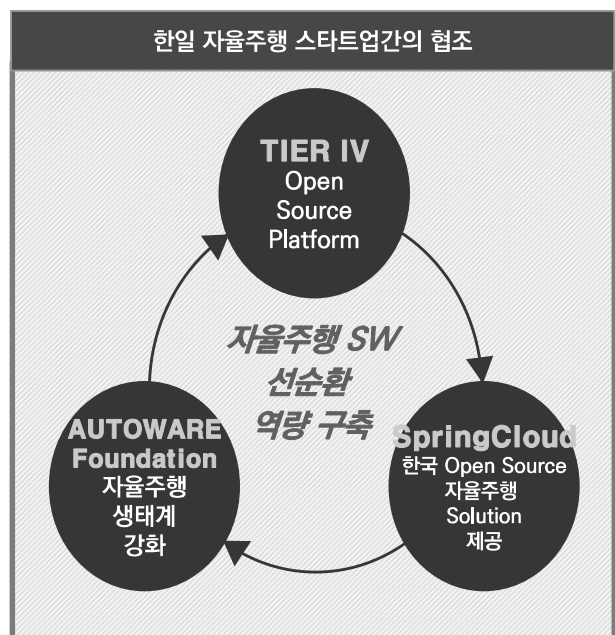
SpringCloud
(한국)

- 2017년 7월 창업
- 대표 : 송영기
- 60명(23년 기준)
- 한국내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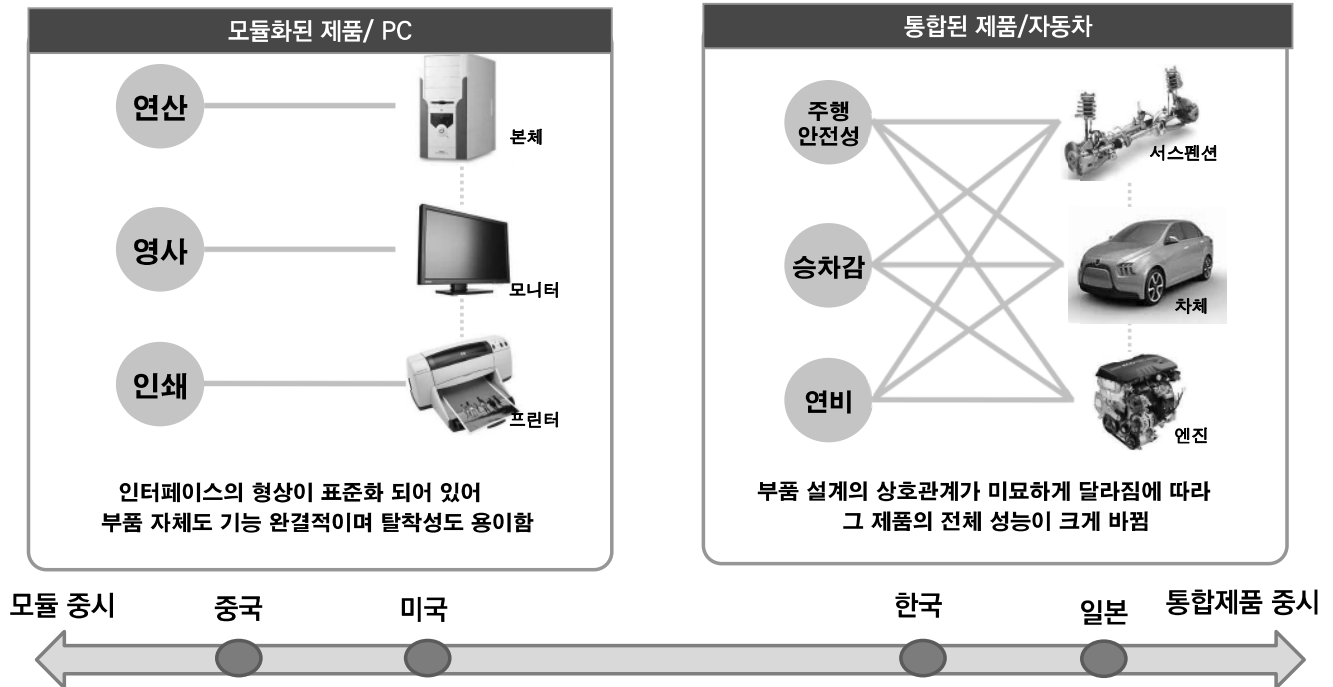
- 23년 4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한일 스타트업간 상호 협력으로 인재 육성, 사업 영역 확대

한일 자율주행 스타트업간의 협조



제품의 아키텍처 분류 : 모듈과 통합형 제품 16

- 제품을 기능과 부품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모듈과 통합형 제품으로 구분
- PC는 대표적 모듈 제품,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통합형 제품



동일 산업 다른 설계 사상 (아키텍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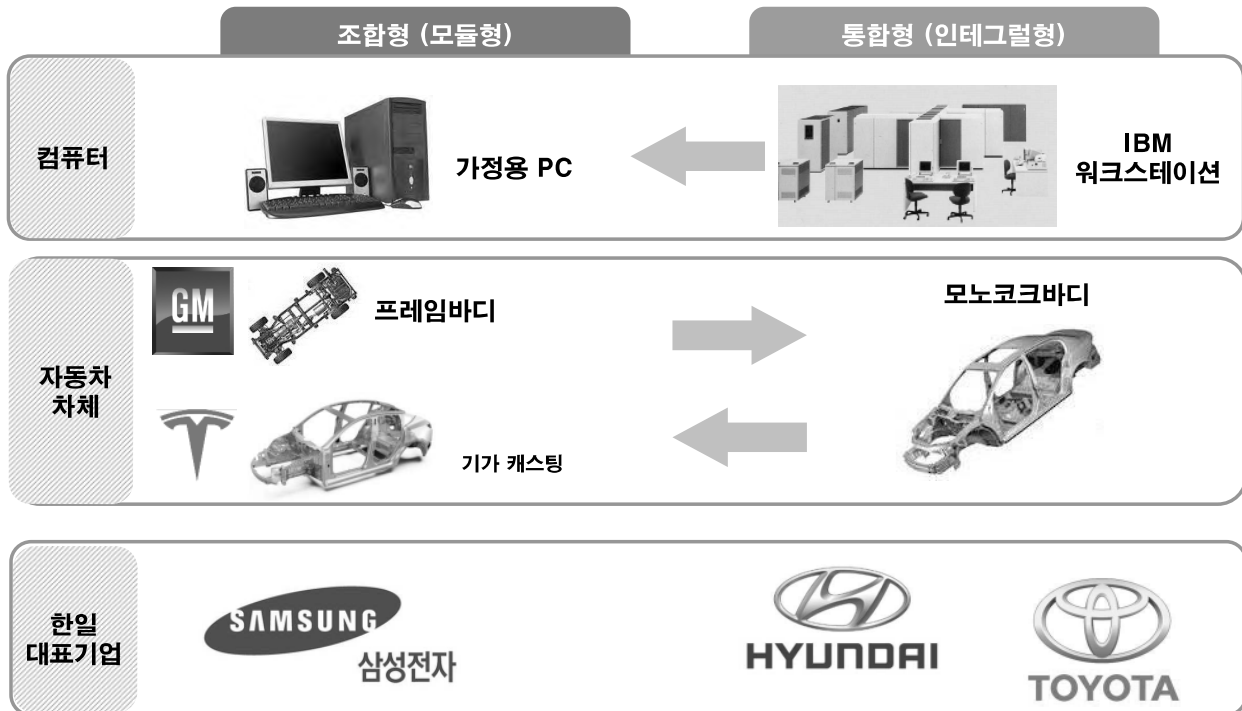
- 동일한 제품에도 모듈 특성이 강한 제품과 통합형 특성이 강한 제품이 존재
- 일본은 통합형(Integral) 산업, 중국이 조합형(Module)산업에 강함

제품	조합형(모듈형)	통합형(인테그럴형)
술	칵테일	포도주
자동차	트럭	승용차
소프트웨어	리눅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반도체	DRAM	시스템 LSI

■ 제품 아키텍처의 동태성

18

- 제품의 아키텍처는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 제품의 아키텍처가 바뀌면 기존 아키텍처에 익숙한 기업이 쉽게 적응하기 힘들



■ [자동차]한국/일본과 미국/중국 자동차의 제품 아키텍처

19



중국/NIO의 배터리 교환

NIO 전기차 배터리 교환



중국 장청기차/탱크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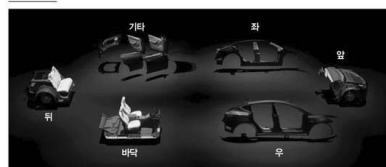


대쉬보드 → 롤스로이스
시프트레버 → BMW
(다양한 회사의 디자인 요소 카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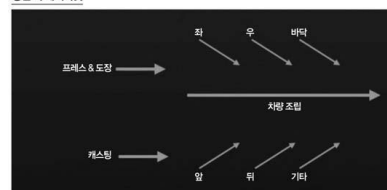
미국/테슬라 Unboxed Process

테슬라 모듈러 생산기법(제안)

6개 빅모듈



생선 뼈 레이아웃



생산 방식의 완전한 모듈화 시도
6개의 대모듈을 합쳐서 자동차 생산
로봇/자동화에 손쉬운 구조로 변화 시도

한국/일본 HEV, FCV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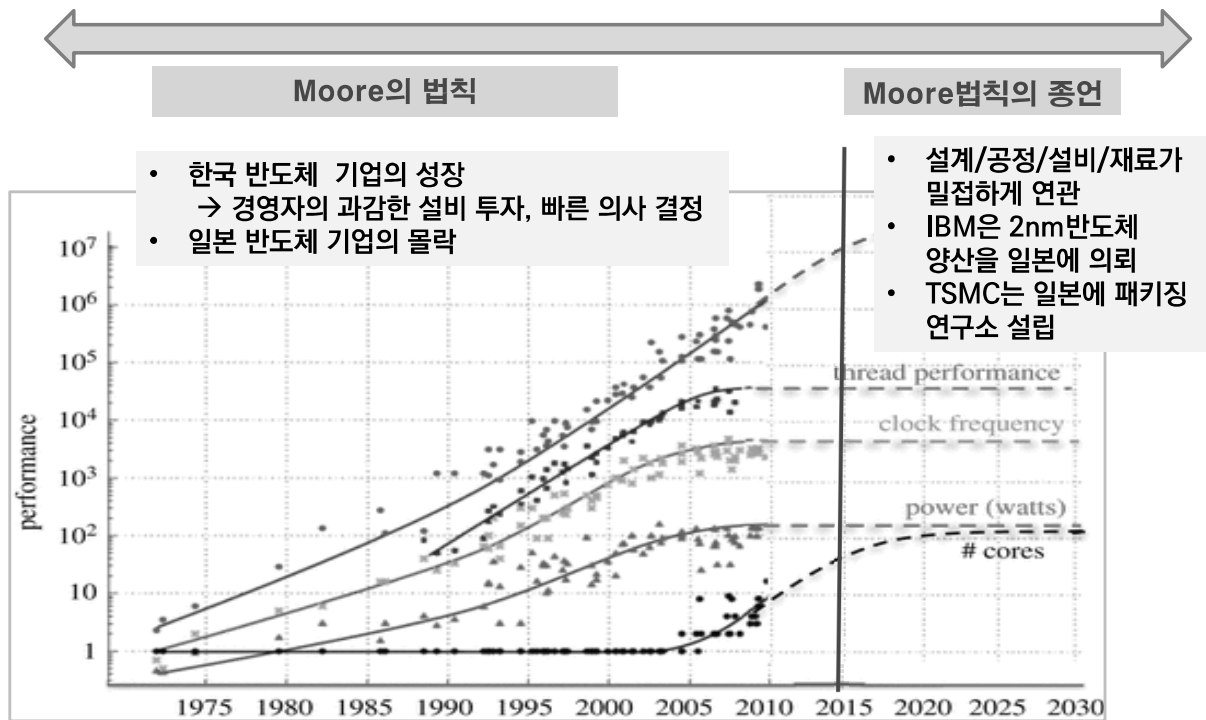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통합형 제품
단일 모델에서 좋은 성능 보이나,
비용 저감 위해 모듈 개념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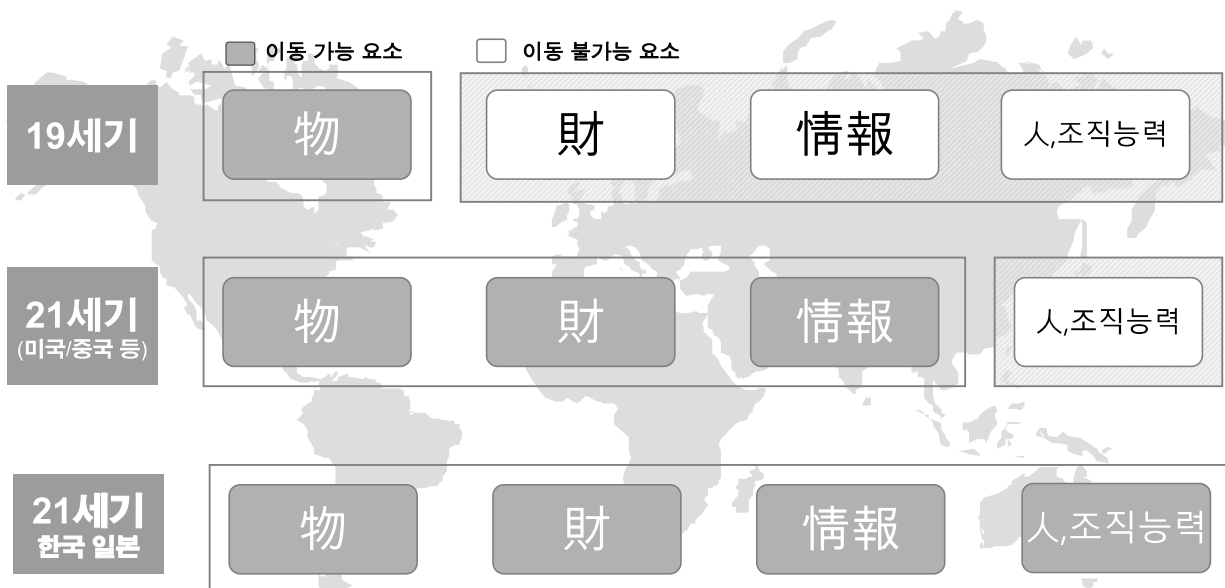
■ [반도체] Moore법칙 종언→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어쩌면 Moore법칙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재료/설비 메이커와 협력 강화 필요

■ 한국/일본 기업은 비슷한 조직 능력

- 19세기 물건이 이동 가능 → 21세기 자본과 정보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
- 기업의 조직 능력과 인력은 비교적인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 경쟁
- 한국/일본 기업은 비교적 비슷한 기업 조직 역량 보유 → 경쟁하면서 협조 가능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제품 다양화, 지역 완결형 생산,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

과거 한국은 상호학습/상호간에 이용/ 시장 진출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성장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비슷한 조직 역량 보유→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협조/경쟁하면서 미국/중국과 경쟁 필요

미래를 향해, 한일경제협력 강화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소개~

마루베니 주식회사
고문
구로이시 구니노리

2023년 5월 17일

○ 목 차

마루베니그룹 개요

- 기업 개요
- 조직도
- 글로벌 네트워크
-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개요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 그린전략
- 그린사업 대응
- 재생가능에너지
- 신에너지
- 섬유재활용사업
- 전지재활용사업
- 순환식 육상양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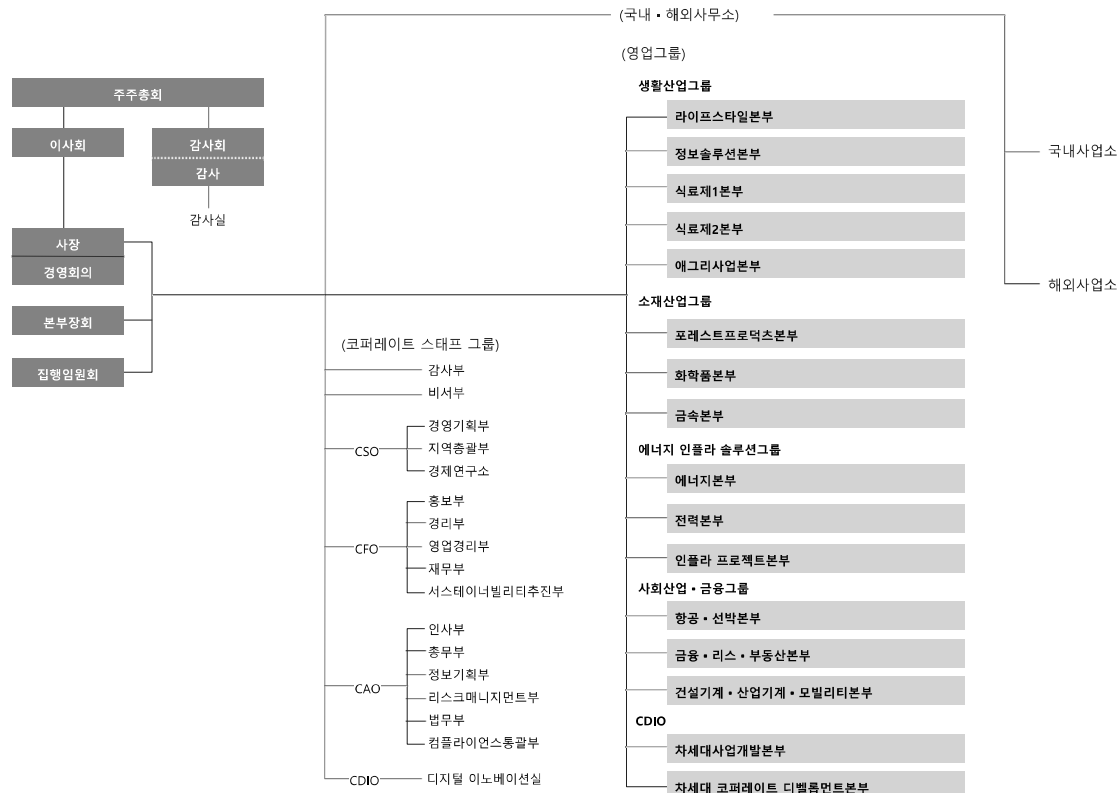
○ 마루베니그룹 개요(기업 개요)

● 창업	1858년 5월
● 설립	1949년 12월 1일
● 대표자	가키노키 마스미
● 자본금	262,947백만엔
● 소재지	우100-8088 도쿄도 치요다구 오테마치 1-4-2
● 일본 및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132거점 <small>본사, 국내지사·지점·출장소 12개소, 해외지점 등 56개소, 해외현지법인 29개사 및 이들 지점 등 34개소</small>
● 종업원 수	4,379명
● 그룹 종원원 수	46,100명
● 연결대상기업	46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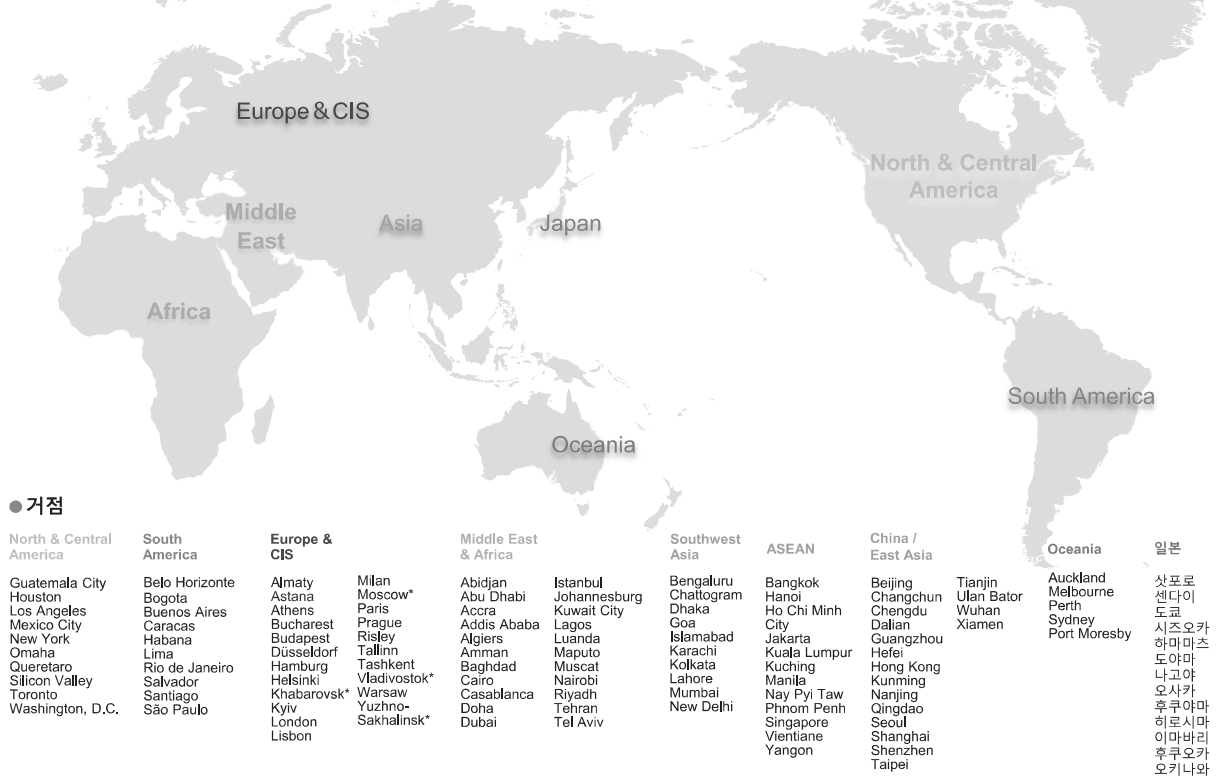


(2022년 3월 31일 현재, 단 *는 2022년 4월 1일 현재)

○ 마루베니그룹 개요 (조직도)



○ 마루베니그룹 개요 (글로벌 네트워크)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신규사업 동결 중. 당사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제재방침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1일 현재) 4

○ 마루베니그룹 개요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개요)

- 거점 설립 1960년 연락사무소 개설, 1967년 서울지점, 1995년 한국마루베니(주) 설립
- 대표자 마시토미 류이치
- 자본금 151억원
- 소재지 26F, Mirae Asset CENTER 1 West Tower, 26, Eulji-ro 5-gil, Jung-gu, Seoul 04539, Korea (TEL : 82-2-310-0114)
- 종업원 수 주재원 5명, 현지스태프 61명 (2023년 4월 현재)
- 주요 비즈니스
 - 라이프스타일제품 판매
 - 금속자원, 에너지, 화학품, 물자, 식료 트레이드
 - 한국기업과의 제3국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대응지원
 - EV용 급속충전기 대유럽·미국 수출
 - MERRELL브랜드신발·어패럴제품 한국내 판매사업 등
- 한국내사업기업
 - Sithe Yosu Cogeneration (증기공급사업)
 - Orffa Korea (사료기능재 판매사업)
 - MBD Korea (Merrell브랜드신발·어패럴제품판매사업)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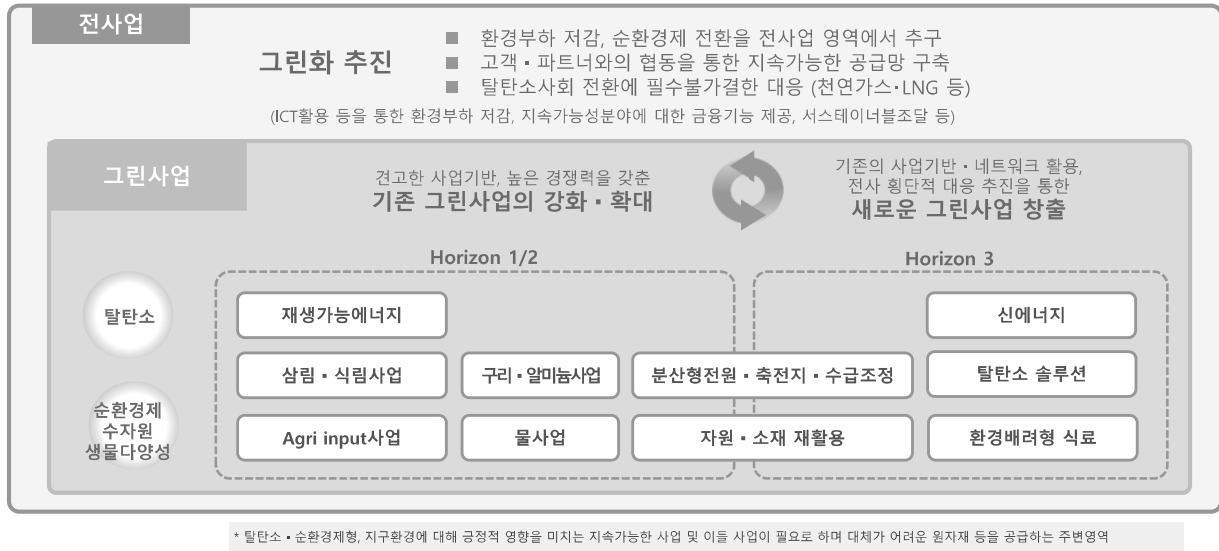
5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그린전략)

■중기경영전략(GC2024)에서 그린전략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방침으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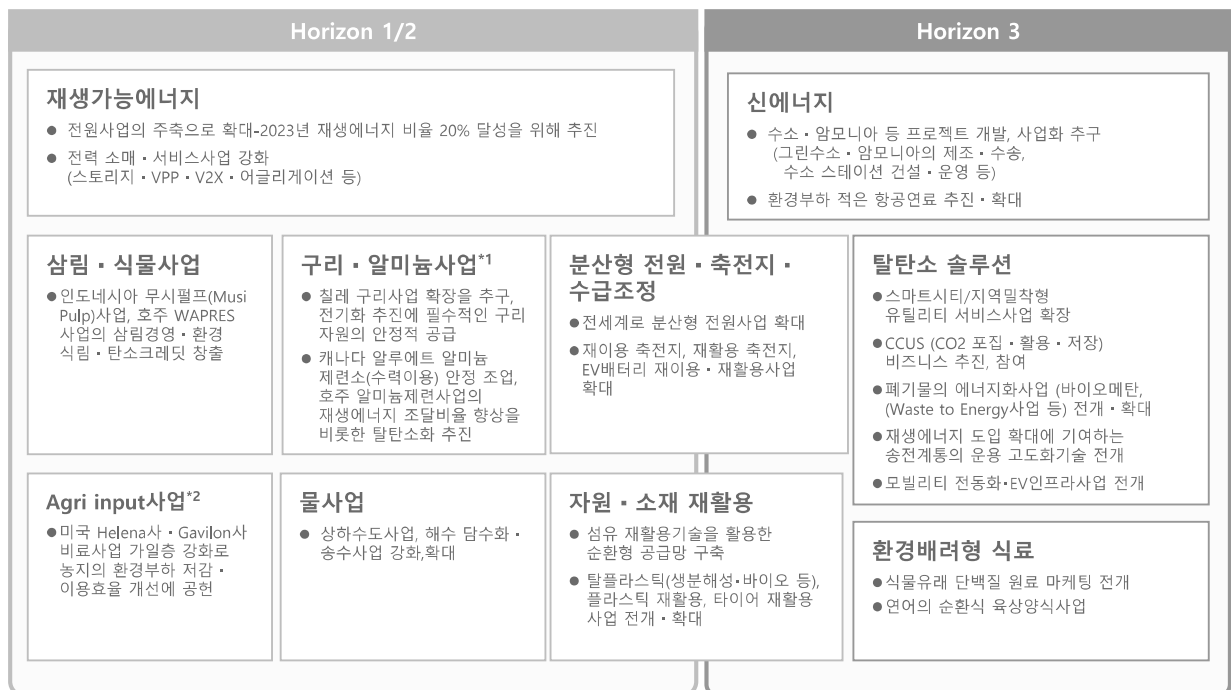
「그린사업* 강화」와 「전사업 그린화 추진」을 통해

그린의 선두주자로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그린사업 대응)



*1 전기화 추진・수송기 경량화 등 탈탄소에 필수적 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대책에 공헌
*2 농업의 토지이용 효율화와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대책 및 생물다양성에 기여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재생가능에너지)

알 카르사 태양광발전소



아키타항 해상풍력발전소



노시로항 해상풍력발전소



출처: 아키타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

출처: 아키타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신에너지①) 그린수소의 제조·수출 사업성 조사



개요

-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풍력) 유래 수소를 제조하여 액화한 후 그레이트스톤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
- 그레이트스톤항은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적절한 양호한 일조량 조건, 풍부한 물, 충분한 수심을 가진 항만에 인접한 공업용지, 일본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 등을 겸비한 유리한 입지에 있으며 호주 정부가 내건 수소 허브 중 하나로 꼽힌다
- 호주 퀸즐랜드주정부 운영 전력기업 Stanwell, APA, 이와타니산업, 가와사키중공업, 간사이전력과 9월에 MOU를 체결하여 FS 개시
- 당사는 주로 상업분야(상용화모델 검토, 현지 네트워크를 구사한 각종 정보 정리, off-taker정보 제공 등)를 담당
- 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기를 이용하여 2027년 무렵부터 100t/일, 2030년대 초반에는 약 800t/일의 수소의 제조·수출을 상정



사업상정개시시기	수소제조규모
2027년~	100t/일 이상
2030년대 초반~	800t/일 이상

파트너

Stanwell

APA

이와타니산업

가와사키중공업

간사이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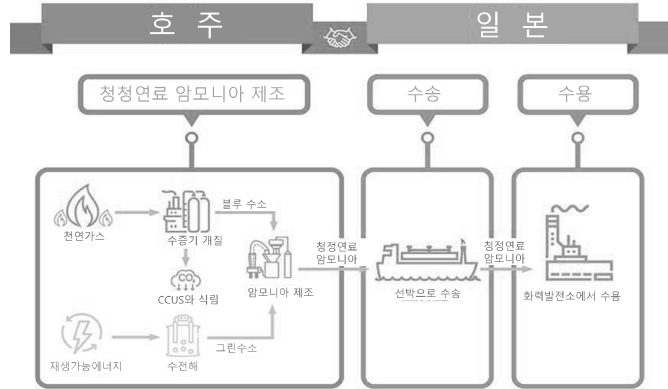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신에너지②)

청정연료 암모니아의 공급망 구축 사업



개요

- 수송을 저비용 및 효율적으로 수송·저장할 수 있는 암모니아는 에너지 캐리어의 역할뿐 아니라 화력발전연료로서 직접적 이용이 가능하며 연소 시에 CO₂ 무배출 연료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
- 2021년도에는 JOGMEC 지원 하에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과 함께 서호주 제조설비에서 일본 수용설비까지 공급망 전체의 공동조사를 실시. 2022년도에는 도호쿠전력, 홋카이도전력도 참여하여 공동조사 지속 중.
- 본조사는 천연가스유래 암모니아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에 CCS 등 CO₂배출감축대책을 고려한 청정연료 암모니아에 대해 호주에서 생산, 일본으로 해상 수송, 발전용·선박용 연료 용도로서 이용/활용 및 파이낸스 검토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사업화 조사를 실시.



파트너

JOGMEC Woodside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도호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향후 전망

- 상용화를 위한 경제성 및 제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연료로서의 암모니아 사회 구현화 대응을 통해 연료 암모니아 도입 및 사업화를 지향한다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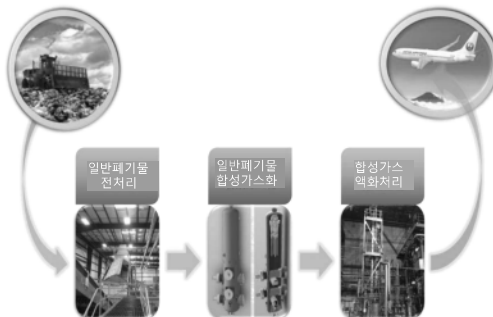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신에너지③)

도시폐기물유래 대체항공연료 제조사업



개요

- 항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적 합의『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등을 배경으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니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업계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시폐기물유래 SAF 제조기술을 보유한 Fulcrum BioEnergy Inc.에 출자.
- 당사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상용 제1호 플랜트 건설을 완료. 2022년 12월 상업생산 개시. 또한 미국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 중.
- 당사는 동사에 대한 출자에 더해 동사와의 공동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내외에서 프로젝트를 개발 중 (예: 일본에서 폐기물유래 SAF 제조·판매사업)



파트너

Fulcrum

일본항공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

향후 전망

- Fulcrum사가 향후 미국내에서 개발 예정인 후속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지향
- Fulcrum사와의 공동프로젝트 개발 계약에 따라 미국내에서 Waste to Fuel사업 프로젝트 개발 추진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11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섬유재활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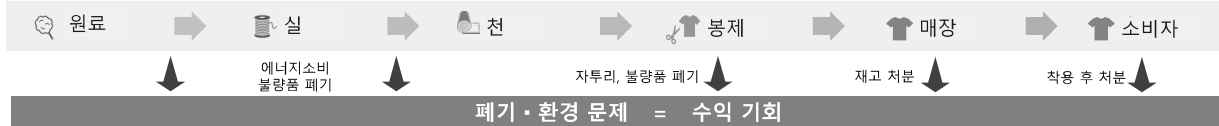
섬유재활용사업: Circ 개요

- 기업명 : Circ, Inc.
- 소재지 : 미국 버지니아주
- 설립 : 2011년
- 사업내용 : 재생섬유원료 제조 · 판매



- ▶ 당사 주도로 글로벌하게 섬유의 순환형 공급망을 구축 · 전개, 폐기물 감축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수익확대 실현을 목적으로 2019년 8월에 출자, 또한 2022년 7월에 추가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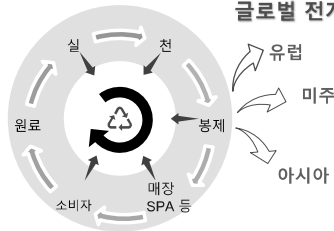
<기존 공급망> 섬유제품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를 인한 대량폐기가 사회 문제로



앞으로 탈플라스틱 등 더 큰 물결이 될 가능성도

<마루베니의 순환형 공급망>

섬유의 순환형 공급망을 글로벌하게 당사 주도로 전개
글로벌 전개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irc 기술로 인한 혁신】

- ✓ 면 · 폴리에스터제품을 폴리에스터원료와 셀룰로스섬유원료로 재생하는 기술
- ✓ 기존 기술에 비해 섬유 재생 효율이 높고 환경부하 측면에서 차별화 가능

【당사 그룹의 강점】

- ✓ 고품질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적시 · 적량 ·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생산체제
- ✓ 대형 고객기업과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유력한 제휴기업과의 견고한 거래관계

12

○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전지재활용사업)

Marubeni's presence in Battery market

Since 1985, Marubeni has extended our presence with good track record to supply Ni/Co in global battery supply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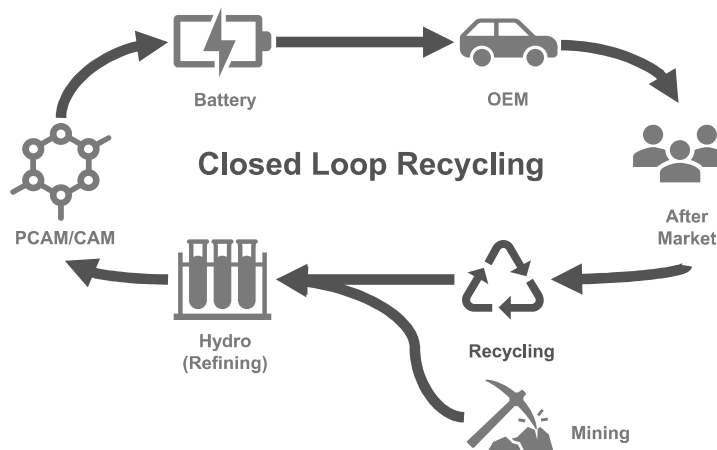


Investment in Cirba Solutions, LLC



Marubeni

In 2021, Marubeni and Retrie Technologies Inc. entered into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to develop circular business model. In 2023, Marubeni invested in Cirba Solutions, LLC(Retrie), the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battery recycler in the US. Marubeni's investment will support the expansion of Cirba Solutions' facilities to expedite and accelerate Battery to Battery Closed-Loop Re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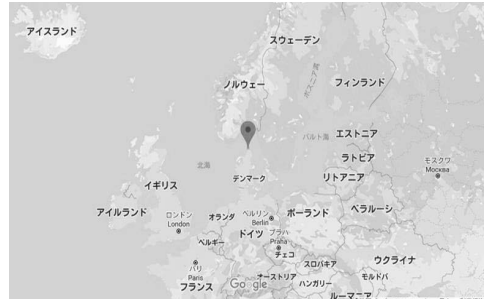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13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연어 순환식 육상양식사업①)

Danish Salmon A/S 기업 개요

- 소재지 덴마크왕국 히르츠할즈(Hirtshals)시
- 설립 2009년
- 연혁
 - 2015년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 첫 출하
 - 2017년 ASC 인증 취득
 - 2018년 1,000톤 생산 달성
 - 2020년 일본수산(株)과 공동참여, 당사의 자회사화, 설비확장공사 개시
 - 2023년 설비확장공사 완료 예정. 2,700톤 생산체제 구축



● 종업원 수 19명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14

○마루베니의 그린사업 (연어 순환식 육상양식사업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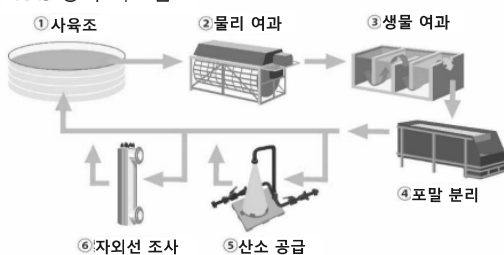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육상양식

- 한정된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원을 안정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전환 가속화.
- 특히 해면양식에 비해 주변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쇄순환식 육상양식(Recirculated Aquaculture System : RAS*)이 주목받고 있음.

* 폐쇄순환식 육상양식(Recirculated Aquaculture System : RAS):

고도의 수질여과기술을 통해 약 90% 이상의 고수준으로 물을 재이용하면서 실내에 설치한 수조내에서 양식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알의 부화부터 성어 채집까지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양식하는 기술

RAS 양식 시스템



Marubeni © 2023 Marubeni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AS에 의한 대서양연어 양식의 특징

기존의 해면양식에 비해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주변해역 생태계 유지

- 고도의 수질 여과를 통해 남은 먹이나 배설물의 해면 유출을 거의 제로 수준까지 억제. 양식장 주변해역 생물이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로 인해 사멸되는 리스트를 회피
- 실내의 폐쇄된 환경에서 양식함으로써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양식망 마모 등으로 인한 양식어 유출로 인해 주변해역의 고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트를 회피
- 임의 입지로 양식장 건설이 가능. 소비지에 가까운 양식장에서 출하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면양식 대서양연어보다 수송 상의 CO2 배출량 감축이 가능

환경부하 저감

×

생태계 유지

15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2023.05.17

한일 기업의 협력 방향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박상준

요약

- ▶ 한일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 2022년의 한일간 수출입은 2018년 수준
- ▶ 그러나 한일 시장에 변화 감지
- ▶ 일본 시장에서 한국 식료품·화장품의 매출 급증
-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소프트웨어·스마트센서 등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 ▶ 서로 간에 Country Risk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 과거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에서 한일 기업은 성공적으로 제3국에 공동진출
- ▶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도 유사한 시너지 효과 기대
- ▶ 관광산업에서의 협력 필요: 공동 비자, 항공기 연계 등
- ▶ 일본 기업의 후계자 문제 해결에 한국 기업의 M&A 활용

한일 교역 현황

한국의 대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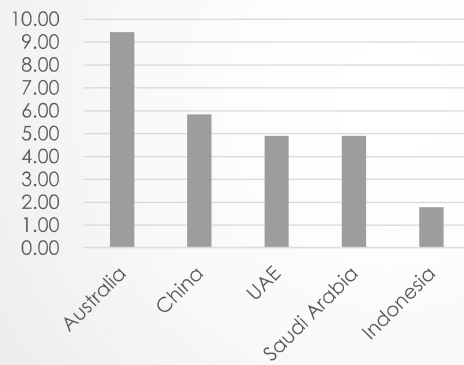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일수출	305.3	284.2	250.9	300.6	306.1
대일수입	546.0	475.8	460.2	546.4	547.1
무역수지	-240.8	-191.6	-209.2	-245.8	-241.1
수출일본비중(%)	5.1	5.2	4.9	4.7	4.5
수입일본비중(%)	10.2	9.4	9.8	8.9	7.5

- 대일 무역은 2019년 수출규제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감소
- 202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2018년 수준
- 상대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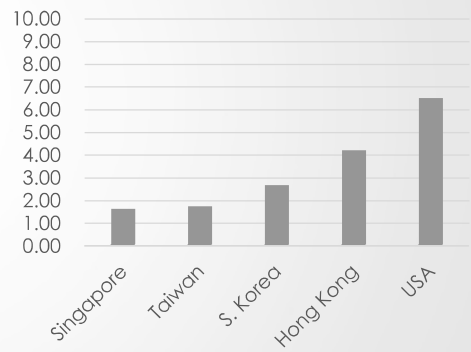
일본의 2022년 국별 무역수지

- 한국은 일본의 3번째 무역 흑자국

일본의 국별 무역 적자 (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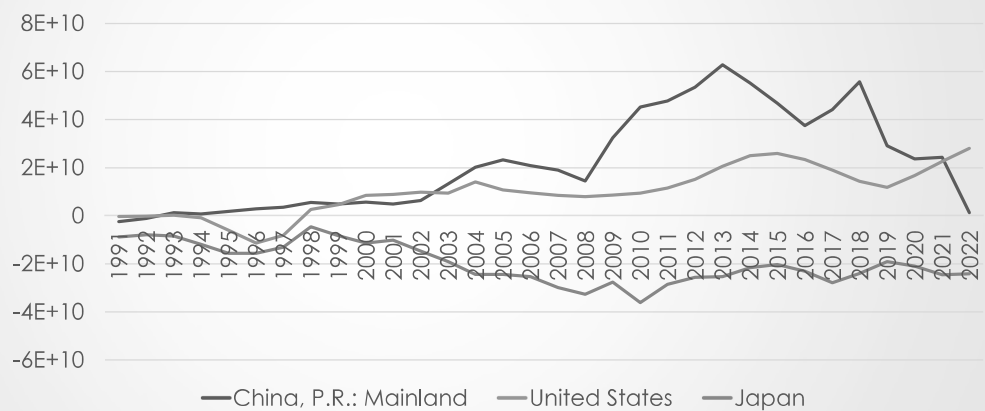
일본의 국별 무역 흑자 (조엔)



한국의 국별 무역수지 (1991~2022)

- 대일 무역적자는 대미·대중 무역 흑자로 연결

- 최근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한일 시장의 변화

2023년 한국의 박스오피스

- 일본 영화가 1,2위를 차지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 2023.03.08.
누적 4,859,967명



더 퍼스트 슬램
덩크
개봉 2023.01.04.
누적 4,526,4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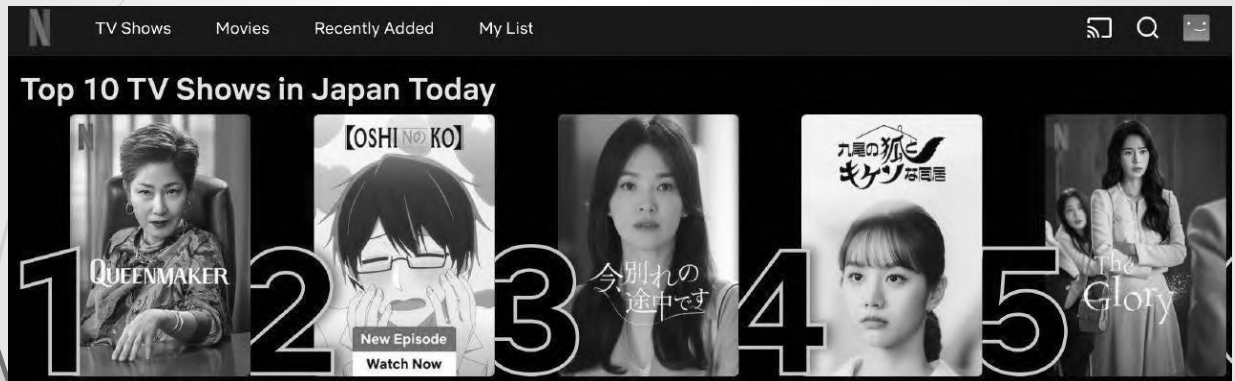
교섭
개봉 2023.01.18.
누적 1,721,111명



앤트맨과 와스
프: 퀀텀매니아
개봉 2023.02.15.
누적 1,551,129명

2023년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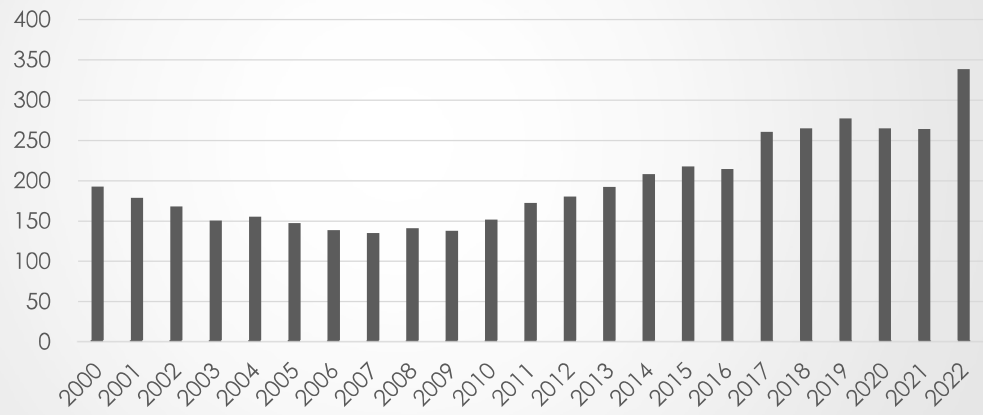
- 한국 드라마가 1,3,4,5위를 차지



2023년 일본 시장의 변화

- ▶ 대일 수출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반면, 일부 분야의 수출은 급성장 중
- ▶ 의약품 : 2.8억 달러 (2018년) -> 11.5억 달러 (2022년). 4.1배 증가
- ▶ 화장품 : 3억 달러 (2018년) -> 7.5억 달러 (2022년). 2.5배 증가
- ▶ 2022년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 (프랑스 2위)
- ▶ 한국 식료품의 인기로 「カンビニ」 라는 신조어 등장 (韓国+コンビニ)
- ▶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 식료품의 일본 생산까지 계획 중

대한 식료품 수입 추이 (10억엔)



일본 수퍼의 한국 식료품 코너



한일 기업의 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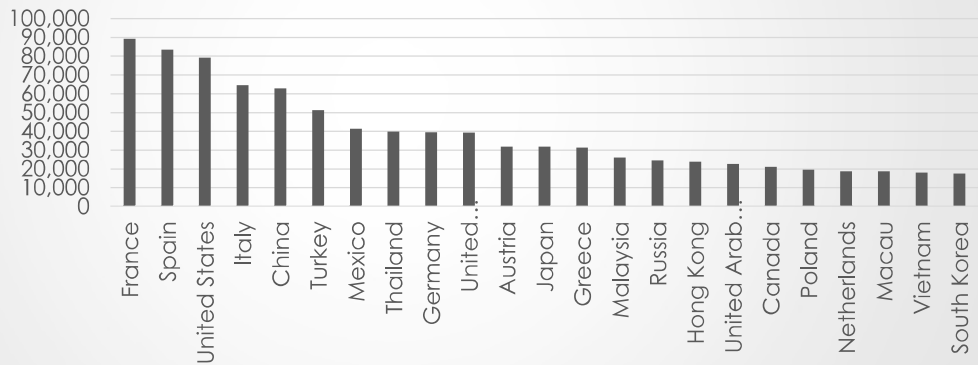
공급망 강화와 제3국 공동 진출

- ▶ 일본 DX의 영향으로 한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
- ▶ 일본 2035년까지 신차 100% 전기차화 목표
- ▶ 리튬이온전지 수요 증가
- ▶ 전해질 첨가제 (한국) -> 전해질 (일본) -> 리튬이온전지(한국) -> 전기차 (일본)
- ▶ 소니 부품 -> 삼성 반도체 -> 화웨이 스마트워치
- ▶ 안면인식센서 (NEC) -> 안면 인식 기기 (한국) -> 해외에 수출
- ▶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보다 더 밀접한 공급망 사슬이 형성 중
- ▶ 과거에는 화력·수력·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한일 기업이 협력 (필리핀 일리한 전력 발전소: 한국전력·미쓰비시 상사·SMBC 등 참여; 요르단 IPP3 프로젝트: 한국전력·미쓰비시 상사·수출입은행·미즈호은행 등 참여)
- ▶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가능

관광산업의 한일 협력

-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프랑스의 1/3 수준에 불과

Number of foreign visitors (2019, Unit:1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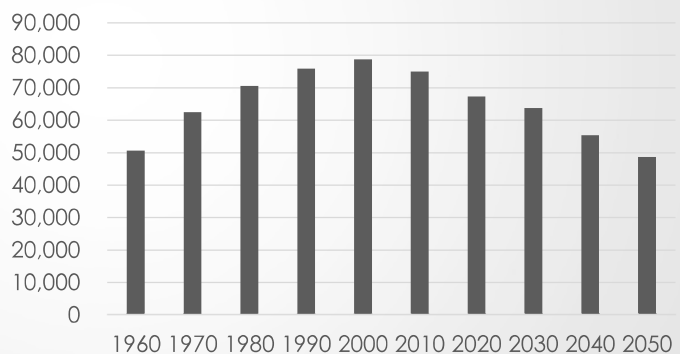


일본 인구 추이

- 인구 감소로 국내 시장 축소, 지방 소멸 위기 (한일의 공통 과제)
- 관광 산업 활성화는 내수 시장 확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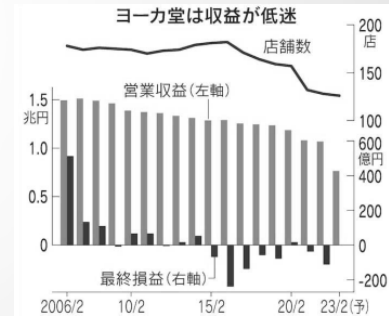
- ▶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 축소
- ▶ 1996년부터 생산가능연령인구 (15~64세) 감소
- ▶ 2012년부터 인구 감소
- ▶ 20~64세 인구
 - 2000년 7900만명에서 2020년 6700만명으로 감소 (1980년 보다 적은 인구)
 - 2040년에는 5500만명 예상 (1960년대 인구로 감소)

20~64세 인구 (1000인)



내수 시장 축소의 여파 (‘Seven and I’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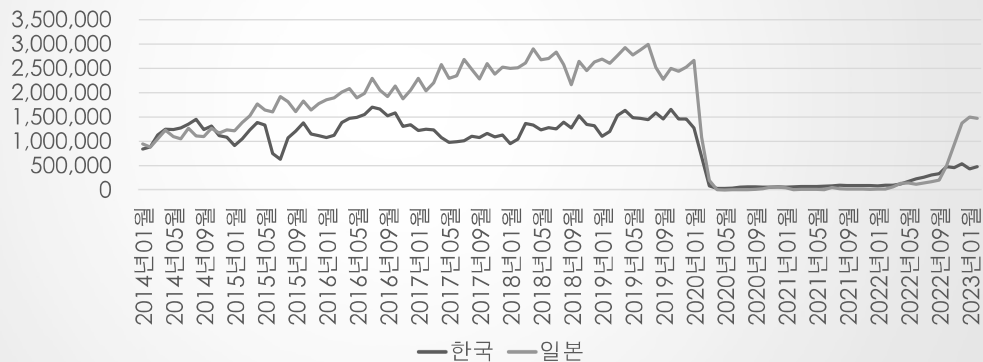
- ‘Seven and I’ 매출 10조엔 돌파
 - 2023년 2월 결산
 - 11조8113억엔의 매출액 발표
 - 일본 소매업 최초로 10조엔 돌파
 - 그러나 위기감 고조
 - 해외 매출 증가 + 국내 시장 축소
 - 슈퍼 이토요카도 적자 누적
 - 점포수 182→126→20% 축소. 어패럴 포기
 - 백화점 적자 → 매각
 - 세븐일레븐은 가맹점 오퍼 부족
 - 일손 부족으로 24시간 영업 위기



관광산업의 한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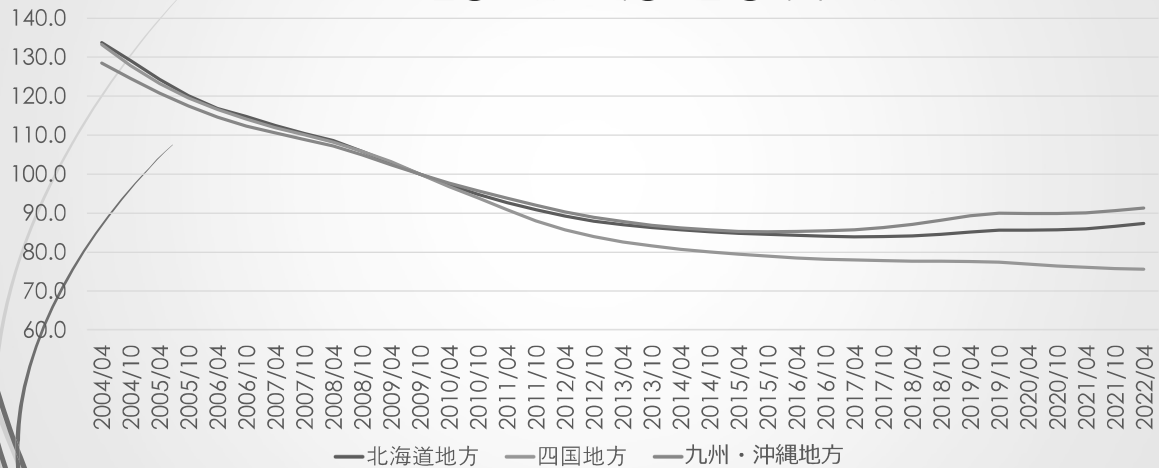
-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레저·호텔 사업에 훈풍
- Blackstone은 긴테츠 그룹 호텔 매수

외국인 관광객 추이 (2014.01~2023.02)



일본의 시가지 가격지수 (2009.10=100, 2004~2022)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세 반등
- 관광 산업은 지방소멸 방지에 도움



관광산업의 한일 협력

- 상호 비자 인정
- 미국 비자 -> 캐나다·멕시코 여행 가능
- 유럽 연합: 하나의 비자로 가맹국 여행 가능
- 일본은 애니메이션·온천·자연 등을 찾아 방문
- 한국은 K-pop·K-drama 등의 영향으로 방문
- 한국 -> 일본, 일본 -> 한국으로 행선지를 넓히도록 유도하는 전략 필요
- 항공 자유화 단계의 확대 필요
- “방콕 -> 서울 -> 도쿄 -> 방콕” 등의 여정이 가능하도록 협의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

- 일손이 부족한 일본

- 일본의 고용 사정은 한국보다 양호
- 2013~2021년 사이에 일본 인구는 63만명 감소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수는 각각 264만명, 158만명 증가
- 같은 기간 20대 초반 청년에서도 정규직 취업자수가 38만명 증가
- 2021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일본의 취업율이 한국의 취업율을 상회
- 특히 30대 후반 여성 취업율에서 큰 차이: 한국 57.5%, 일본 75.8%
- 일본의 20대 초반 실업율은 4.8%로 한국의 실업율 8.5%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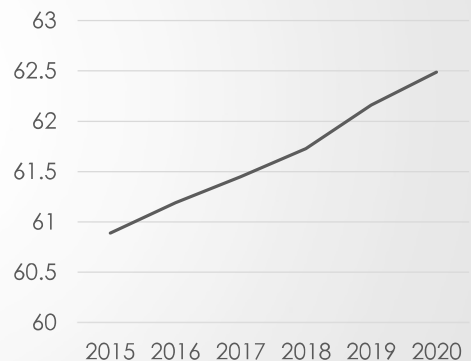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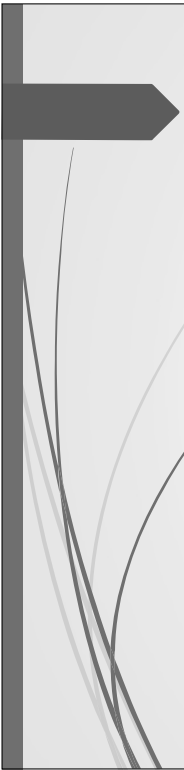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

- 한국 기업에 의한 M&A 활용 필요

-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 기업 CEO의 평균은 꾸준히 상승
- 2020년 70세 이상의 비중은 31.8%
- 특히 지방의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 (고치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순)
-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65%
- 60세 이상 경영자 중 57.2%가 폐업 예정
- 반면 한국 대기업은 50대 퇴직자 다수
- 한국 기업의 적극적 M&A를 서포트하는 정책 필요

일본 CEO의 평균 연령





감사합니다!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일-



시즈오카현 지역외교담당부장 마츠무라 아키히로

2023년 5월 17일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목 차

- I 시즈오카현 개요
- II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 1 이념
 - 2 중점 지역
 - 3 한국주재원사무소
- III 시즈오카현과 한국의 교류~역풍 속에서도
 - 1 충청남도와의 교류(10주년, 단체교류, 상호 홍보)
 - 2 조선통신사 교류
 - 3 청소년 교류
 - 4 광역 교류(4개지역, 동아시아문화도시)
 - 5 후지산시즈오카공항
- IV 마무리

시즈오카현 <도쿄 · 나고야에서 약 1시간>

인구 360만명 면적 7,777km²
(충남+충북=시즈오카)

日本/일본

静岡/시즈오카

신칸센 6개역 정차

大阪 京都 名古屋 浜松 掛川 静岡 新富士 三島 熱海 東京

HIKARI 60min. HIKARI 60min. HIKARI 115min.

名古屋 나고야

大坂 오사카 (新大阪)

中部国際空港 富山県 羽田国際空港 東京都

静岡/시즈오카

富士山静岡空港 静岡県 東京 東京都

東海道新幹線 도카이도 신칸센

도쿄 ⇔ 시즈오카 60min
나고야 ⇔ 시즈오카 60min

I 산업의 중심 시즈오카현

2020년 제조품 출하액 약17조엔(약1250억US달러) 일본 3위

◆시즈오카현의 주요 기업(제조업)◆

<p>수송기 · 기계 등</p> <p>SUZUKI HONDA The Power of Dreams</p> <p>YAMAHA HAMAMATSU PHOTON IS OUR BUSINESS</p> <p>YAZAKI Canon</p> <p>MITSUBISHI ELECTRIC 三菱電機 Changes for the Better</p>	<p>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p> <p>TERUMO JANSSEN BECKMAN COULTER PHARMACEUTICAL</p> <p>COVIDIEN pigeon ツムラ 漢方の</p> <p>CHUGAI astellas 小野薬品工業株式会社</p> <p>SHISEIDO L'ORÉAL PROFESSIONNEL PARIS CHANSON</p> <p>POLA R&M shu uemura BATHCLIN バスクリン</p>	<p>악기</p> <p>YAMAHA KAWAI</p> <p>Roland</p> <p>플라모델</p> <p>TAMIYA BAN DAI</p>
<p>식품 · 음료 등</p> <p>House meiji</p> <p>Asahi Knorr Yakult ソフトドリンク 人も地球も健康に</p>		

4

I 세계적인 자연 · 문화



풍요롭고 매력적인
자연·문화



후지산
세계문화유산



나라야마 반사로
세계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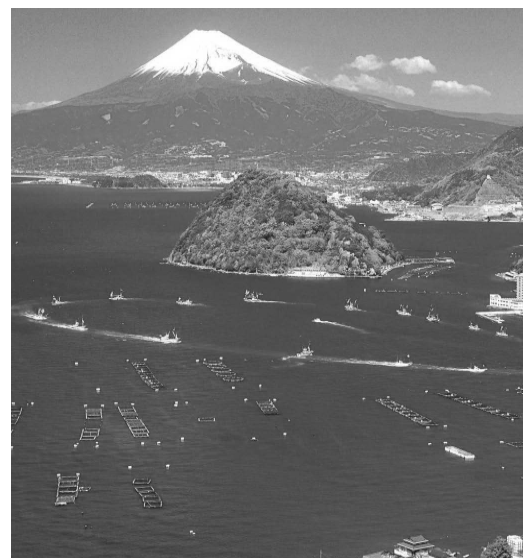
미나미알프스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차구사바 농법
세계중요농업유산



이즈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스루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Club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

5

Ⅱ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Ⅱ-1 “지역외교”란

기본 개념

- 국가 및 지역에 따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우호적 호혜·상부상조 정신으로
자립적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국제협력
(시즈오카현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의를 가지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전개하여
민간단체 및 기업, 현민의 교류를 촉진)

중점 시책

- <유덕자·동경심을 낳는 지역 만들기 교류 촉진>⇒우호친선, 교육
<스포츠·관광 교류 촉진> <통상 촉진>

Ⅱ-2 “지역외교” 전개 -중점 지역-

★ 주재원사무소 설치

● 몽골 【더르너고비 2011년 우호 제휴】
폭 넓은 분야의 인재 교류 추진과 통상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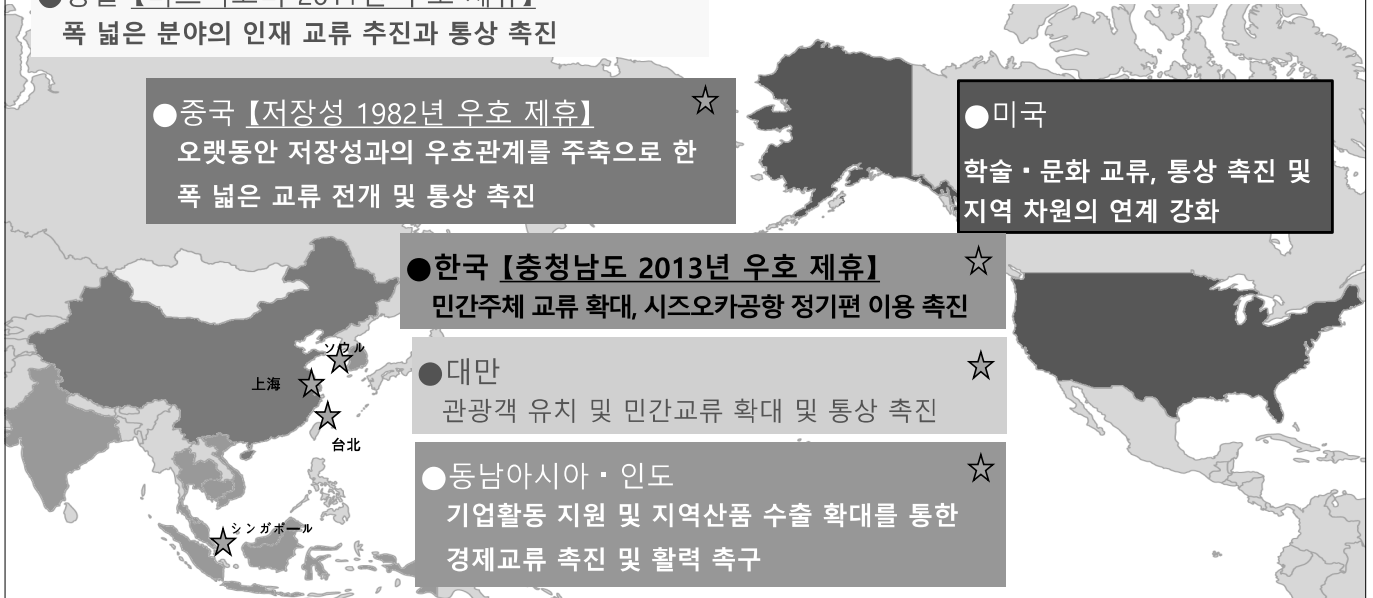
● 중국 【저장성 1982년 우호 제휴】 ☆
오랫동안 저장성과의 우호관계를 주축으로 한
폭 넓은 교류 전개 및 통상 촉진

● 미국
학술 · 문화 교류, 통상 촉진 및
지역 차원의 연계 강화

● 한국 【충청남도 2013년 우호 제휴】 ☆
민간주체 교류 확대, 시즈오카공항 정기편 이용 촉진

● 대만 ☆
관광객 유치 및 민간교류 확대 및 통상 촉진

● 동남아시아 · 인도 ☆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산품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교류 촉진 및 활력 촉구



Ⅱ-3 시즈오카현 한국주재원사무소

○ 주된 업무내용

1. 시즈오카현과 한국의 외교 관련
2. 충청남도와의 우호협정 관련
3. 한국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시즈오카공항과 인천공항, 상호 관광객 유치 확대
5. 시즈오카현 지역산품의 한국내 판로 확대
6. 한국에서 시즈오카현내기업의 사업전개 지원
7. 시즈오카현과 몽골의 외교(MOU) 관련



통칭: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 6층

Ⅲ 한국과의 교류

Ⅲ- I 충청남도와 교류 2023년 우호교류협정 10주년



2013년 우호교류협정 체결
주로 민간단체간 교류 촉진



시즈오카현의 우호교류지역으로 가장 최근에 체결한 충청남도

Ⅲ- I 충청남도와 교류 2023년 우호교류협정체결 10주년



충청남도지사단 시즈오카방문

10주년 기념공연
시즈오카현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무용단 경연

Ⅲ-1 충청남도와 교류 상호 기회를 활용한 관광·물산 홍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충남 보령시) 2022.7.16-8.15



세계 차 축제(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2022.10.20-10.23

Ⅲ-2 조선통신사 우호교류 조선통신사 기념다도회 2014년~

매년 6월 20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통신사를 환대한 세이켄지에서 시즈오카현 지사가 한국 내빈을 초대하여 우라센케의 다도를 대접. 조선통신사를 기리는 기념다도회



●한일 정부간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도 「시즈오카부터 평화를 구축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중단되었으나 2022년 재개

Ⅲ- 2 조선통신사 우호교류

■2020년 1월
부경대학교(부산)와
단국대학교(충남)
대학생들을 초대
시즈오카현 대학생들과 교류



■2021년 11월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시즈오카현 방문.
현지사와 간담

Ⅲ-3 청소년 교류 K-POP 토크카페 2020년도~

일본 시즈오카현 ♥한국 충청남도 청소년 교류

후지노쿠니 K-POP 토크카페 2020



한국 K-POP 고등학교(충남 홍성군)와 시즈오카현 고등학생들의 교류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방식 토크카페를 통해 지역 소개 및 K-POP 고교생들의 댄스
지도 등

Ⅲ-4 광역 교류 한일 4개지역 대학생 온라인 교류회 2022년도

시즈오카현 · 충남(우호협정)
+
야마나시현 · 충북(우호협정)

총인구
800만명
역내 총생산
37조엔

한 나라에
필적

4개지역의 대학생 등 24명이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교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의견교환



Ⅲ- 4 동아시아문화도시2023

한국의 전주시, 중국의 청두시・메이저우시와 함께
시즈오카현이 일본 대표로 문화청으로부터
올해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



東アジア文化都市
2023 静岡県
Culture City of East Asia
2023 SHIZUOKA

도시간 교류를 포함하여 문화예술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두시
(중국 쓰촨성)



메이저우시
(중국 광둥성)



전주시
(한국 전라북도)



시즈오카현



Ⅲ- 4 동아시아문화도시2023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미나・공예체험 (3월)



東アジア文化都市
2023 静岡県
Culture City of East Asia
2023 SHIZUOKA



한국 전주시의 매력 소개와 한지공예 체험 세미나 개최

Ⅲ- 5 후지산시즈오카공항-인천국제공항 정기편 운항 재개!

정기편(일, 수, 금)

국제선 시간표

International Flights
2023.3.26 - 2023.10.28

시즈오카 ◀▶ 서울(인천)
Shizuoka Seoul

JEJUair

편명	운항일	시즈오카 ▶ 인천	편명	운항일	인천 ▶ 시즈오카
7C1281	일·수·금	17:55 ▶ 20:10	7C1282	일·수·금	15:10 ▶ 17:05

+

임시편(월, 화, 목, 토) 6/30까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운항편 감소
코로나로 약 3년간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3월 26일부터 정기편 운항 재개

매일
운항!

후지산과 차밭을 보며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꼭 활용하시길!

就航路線



3/26 ~ 10/28(하계) 취항 노선

IV 마무리: 지자체라 할 수 있는 일,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일

- 「국가」도 「사람」(개인)도 상호이해할 수 있으나 싸우기도 한다
- 「국가」 대 「국가」가 되면 한치도 양보할 수 없게 된다
- 「지자체」(기업도)는 「사람」과 「국가」의 중간 위치에 있다
- 「국가」도 「지자체」도 「사람」(민심)을 거스를 수 없을 때가 있다
- 시즈오카현「지역외교」→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우호적 호혜·상부상조정신을 주축으로 「자립적 신뢰관계 구축」→정부간 대립구조에 대해 「중용」자세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현민」, 「도민」을 육성하는 지자체 노력이 중요(체험과 학습 기회)
 - 한일의「지금 살아 숨쉬는」연결의「좋은 측면」을 알리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 어른들과 기업 역할이 중요(EX.한일기업간의 중요한 필수거래사례 소개 등)

후지산(富士山=不_レ尽_レ山)처럼
흔들리지 않고 다함없는(不_レ尽_レ=不_レ盡)

한일의 우정과 교류를

감사합니다.



한일협력사업의 변화과정 및 향후 방향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30년사를 중심으로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2023년 5월 17일(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전략/국제경영 전공 교수

이형오(李亨五)

목차

1. 발표 목적 및 내용
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사업의 소개
3. 환경변화 및 한일협력사업의 변화과정
4. 한일협력사업의 향후 방향

발표 목적, 발표 내용

■ 발표 목적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한일재단)은 2022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방향 모색 필요
- 한일재단의 30년간 사업을 정리, 트렌드 변화 확인 후 한일협력사업의 향후 방향성 모색

■ 발표 내용

- 한일재단 및 사업의 소개
-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한일협력사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봄
- 한일협력사업의 향후 방향을 모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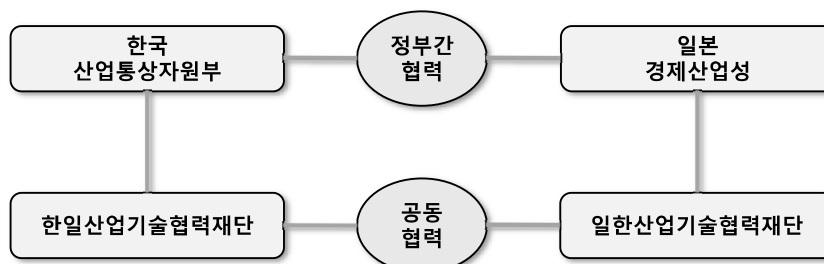
한일재단의 설립배경 및 설립목적

■ 한일재단 설립배경

- 1992년 1월, 「한일간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하기로 합의
- 1992년 9월 1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일재단) 설립
- 1992년 12월 25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일한재단) 설립

■ 한일재단 설립목적

- 한국과 일본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임



4

한일재단의 사업유형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30년간(1993년~2022년) 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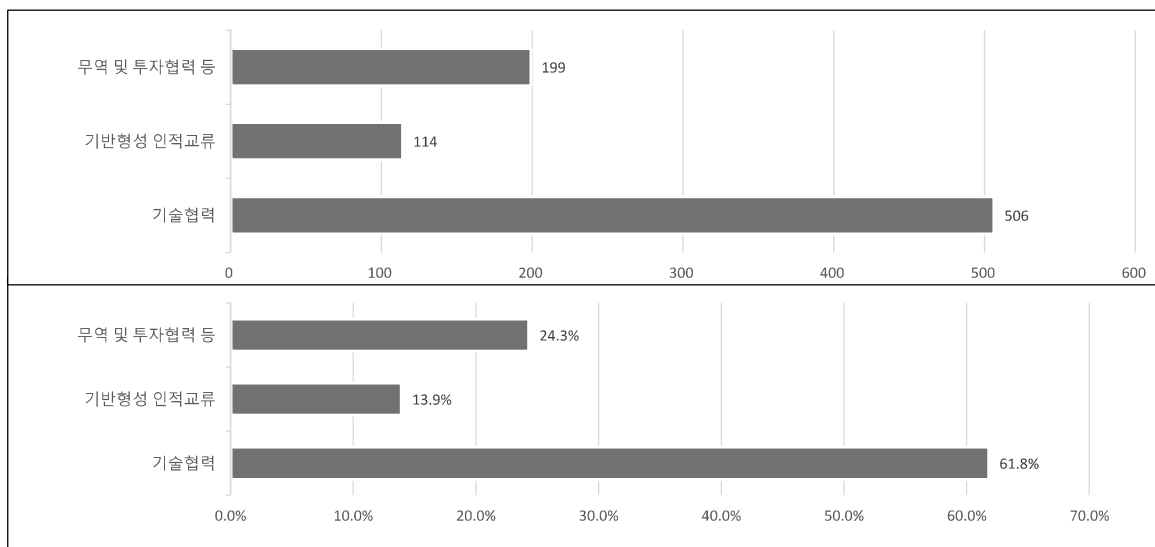
대분류 (분야)	중분류 (사업군)		소분류 (개별사업)	연간사업 (건)
기술협력	전체산업 대상	공공연구인력 교류 및 대학생 일본파견	9	53
		기업현장인력 일본연수	35	139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13	74
		한일 산업기술교류	2	10
		한일 공동기술연구	1	9
	특정산업 대상	부품소재 분야 기술협력	43	174
		신산업 분야 기술협력	9	47
	소계		112	506
기반형성 인적교류	경제인 교류	6	43	
	지역별 교류	6	71	
	소계	12	114	
무역 및 투자협력 등	수출마케팅 지원	30	120	
	투자유치	6	17	
	일본내 거점 운영	1	4	
	각종 세미나	6	14	
	조사 및 연구	20	44	
	소계	63	199	
합계			187	819

주: 연간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이 복수년에 걸쳐 수행될 경우 각년 사업을 1건으로 계산함

5

한일재단의 사업유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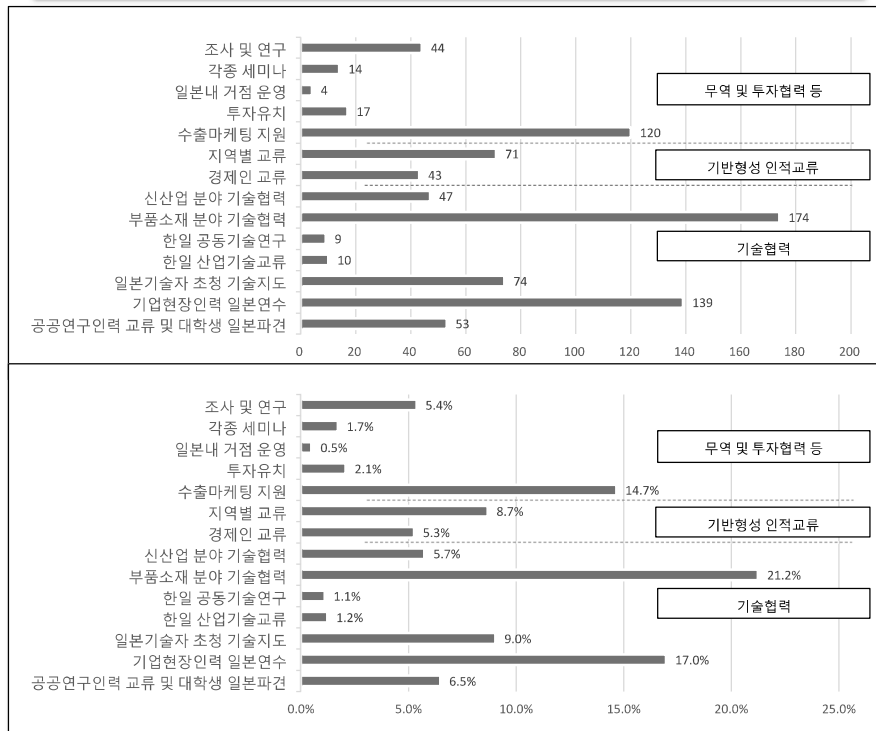
1993년~2022년 한일재단 사업 분포(대분류, 사업건수 및 비중)



6

한일재단의 사업유형 (3)

1993년~2022년 한일재단 사업 분포(중분류, 사업건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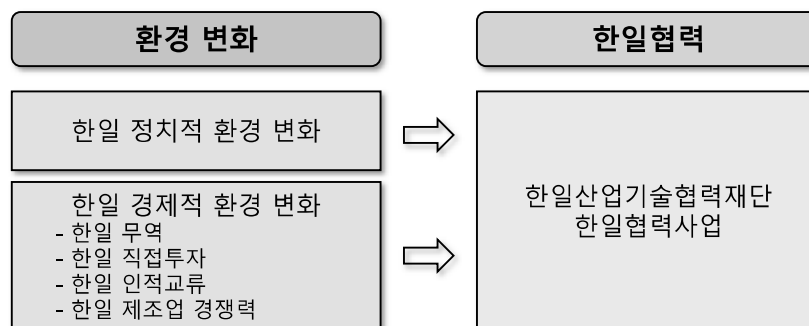


7

한일경제 관점의 환경변화

-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
 - 제1단계: 1993년 ~ 2002년
 - 제2단계: 2003년 ~ 2012년
 - 제3단계: 2013년 ~ 2023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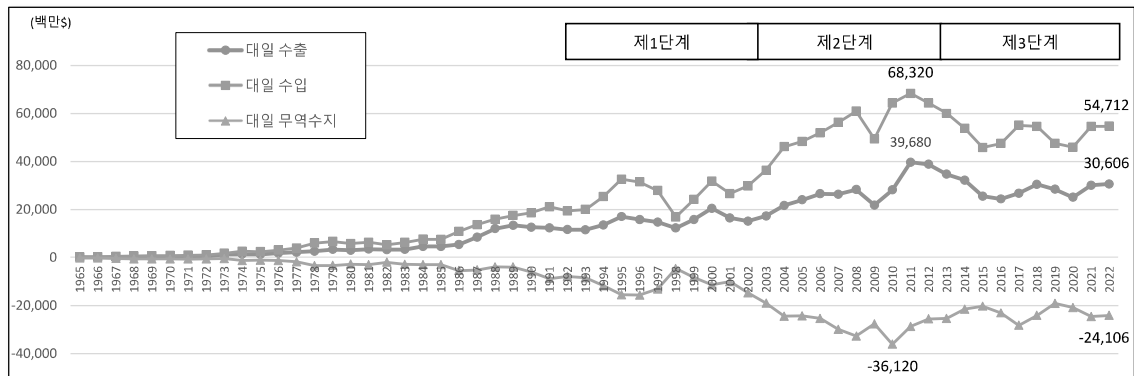
8

한일 무역 상황의 변화 (1)

■ 수출, 수입, 무역수지 상황

-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는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무역적자 모두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제3단계에서는 이들이 감소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음
- 대일 수출 및 수입은 2011년에, 대일무역적자는 2010년에 정점에 달하였음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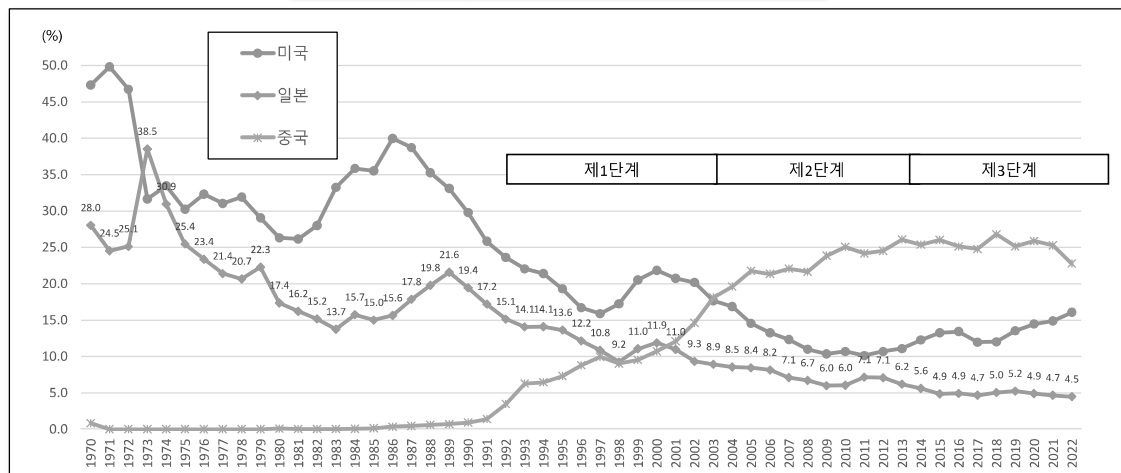
9

한일 무역 상황의 변화 (2)

■ 한국 수출에서의 미일중 비중

-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비중과 미국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 반면, 중국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음
- 일본 비중은 1992년에 15.1%였으나 2022년에는 4.5%로 낮아짐

한국의 미일중 수출 비중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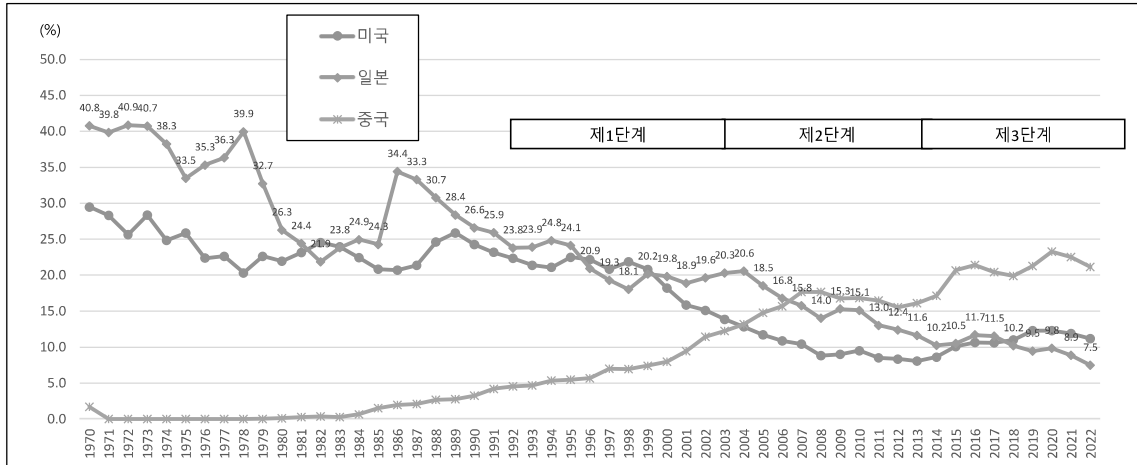
10

한일 무역 상황의 변화 (3)

■ 한국 수입에서의 미일중 비중

- 수입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비중과 미국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 반면, 중국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음
- 일본 비중은 1992년에는 23.8%였으나 2022년에는 7.5%로 낮아짐

한국의 미일중 수입 비중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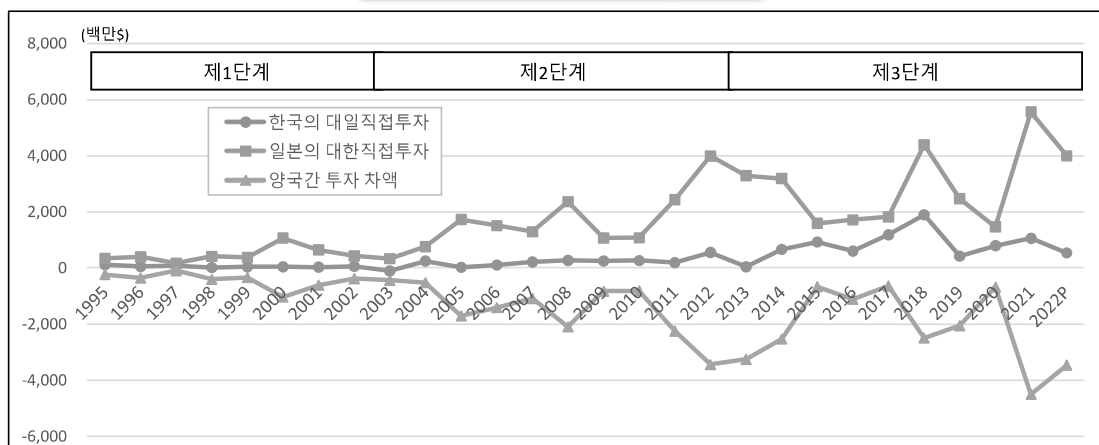
11

한일 직접투자 상황의 변화

■ 한일 직접투자 상황

-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가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를 상회하면서 양쪽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제3단계에서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증가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음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12

한일협력사업의 발전단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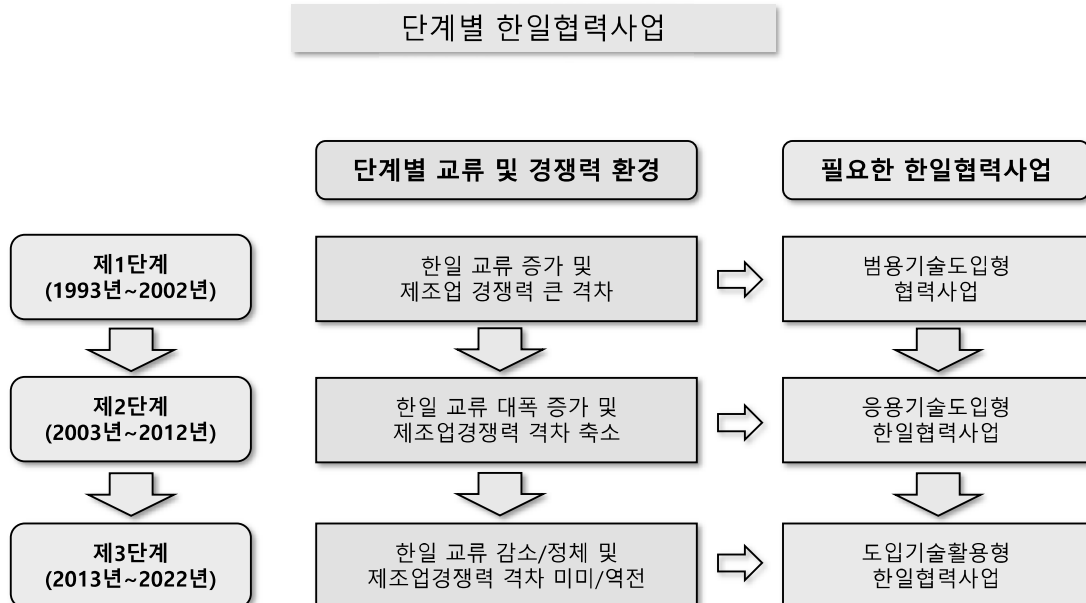
■ 발전단계의 구분

- 제1단계는 **범용기술도입형**, 제2단계는 **응용기술도입형**, 제3단계는 **도입기술활용형**으로 규정할 수 있음

	제1단계 (1993년~2002년)	제2단계 (2003년~2012년)	제3단계 (2013년~2022년)
한일 무역 상황	- 대일수출 증가 추세 - 대일수입 증가 추세 - 대일무역적자 증가 추세	- 대일수출 대폭 증가 추세 - 대일수입 대폭 증가 추세 - 대일무역적자 대폭 증가 추세	- 대일 수출 감소 추세 - 대일 수입 감소 추세 - 대일무역적자 감소 추세
한일 직접투자 상황	- 일본 대한투자 증가 추세 - 한국 대일투자 미미	- 일본 대한투자 대폭 증가 추세 - 한국 대일투자 소폭 증가 추세	- 일본 대한투자 감소 또는 정체 추세 - 한국 대일투자 증가 또는 정체 추세
한일 인적교류 상황	- 방한일본인 증가추세 - 방일한국인 증가추세 - 전자가 후자 능가	- 방한일본인 증가 추세 - 방일한국인 증가 추세 - 여전히 전자가 후자 능가	- 방한일본인 감소/정체 추세 - 방일한국이 급증 추세 - 후자가 전자를 추월함
한일 제조업 경쟁력	- 한일간 큰 격차 축소 추세 - 1996년 CIP 순위: 일본 2위, 한국 12위	- 한일간 격차 크게 줄어 들어감 - 2006년 CIP 순위: 일본 3위, 한국 5위	- 한일간 격차 미미/역전 - 2016년 CIP 순위: 일본 5위, 한국 4위
필요한 한일협력사업	- 범용기술도입형 협력사업: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학습	- 응용기술도입형 협력사업: 개별기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	- 도입기술활용형 협력사업: 일본으로부터의 도입기술을 한국에 맞게 활용
한일재단의 사업형태	- 재단 설립 후 초기에는 위탁사업 위주로 진행하면서 사업 노하우를 축적	- 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 재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재단이 대부분 직접 사업을 수행

15

한일협력사업의 발전단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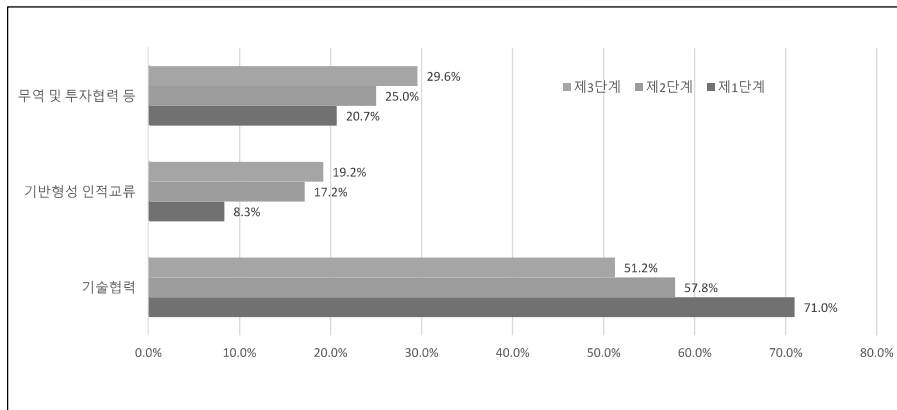
16

한일협력사업의 단계별 사업분포 (1)

■ 대분류 기준 단계별 사업분포

- 단계별 변화의 특징으로는 기술협력 분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 반면, 기반형성 인적교류 분야와 무역 및 투자협력 등 분야의 비중이 점점 증가함
- 한일간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기술협력 분야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이 점점 축소되고, 기반형성 인적교류와 무역 및 투자협력 등 분야 사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

1993년~2022년 한일재단 사업의 단계별 분포(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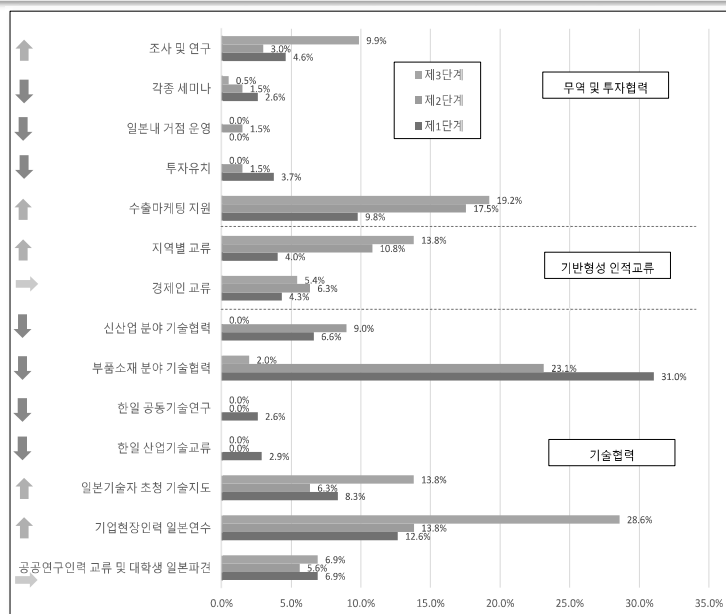
17

한일협력사업의 단계별 사업분포 (2)

■ 중분류 기준 단계별 사업분포

- 중분류 기준으로는 확대된 경우도, 축소된 경우도, 유지된 경우도 있었음

1993년~2022년 한일재단 사업의 단계별 분포(중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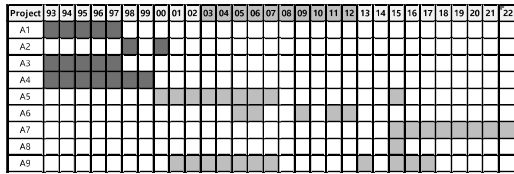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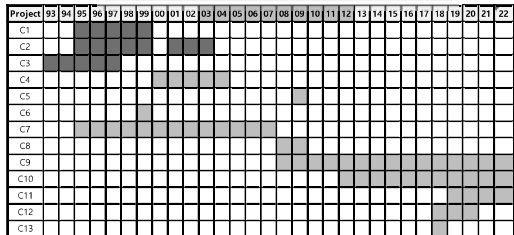
각 사업군 개별사업의 전개과정 (1)

<기술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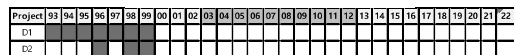
공공연구인력 교류 및 대학생 일본파견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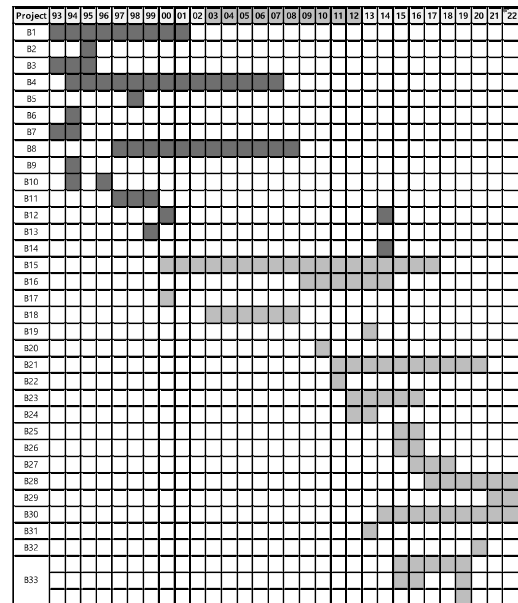
일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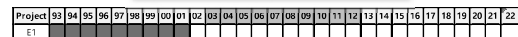
한일 산업기술교류 사업군



기업현장인력 일본연수 사업군



한일 공동기술연구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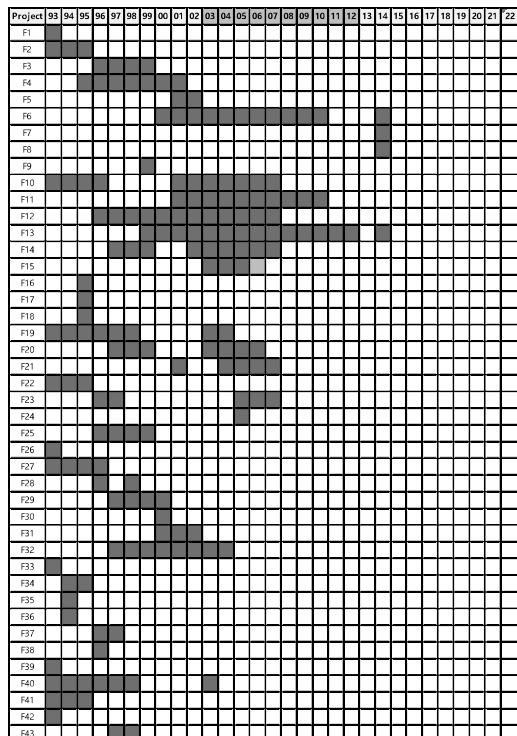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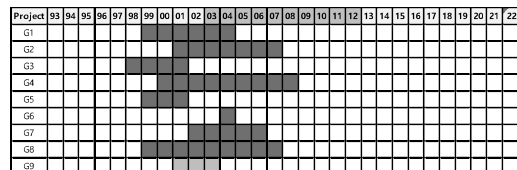
주: 짙은 파랑색은 외부위탁 사업, 녹색은 재단자체 사업

각 사업군 개별사업의 전개과정 (2)

부품소재 분야 기술협력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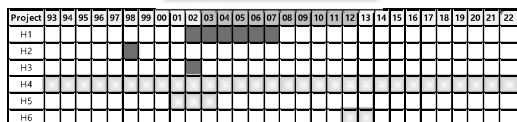


신산업 분야 기술협력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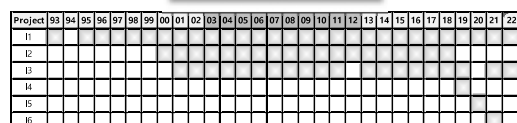


<기반형성 인적교류 분야>

경제인 교류 사업군



지역별 교류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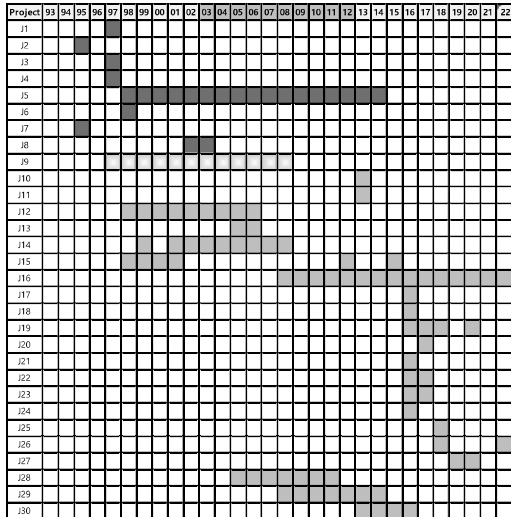
주: 짙은 파랑색은 외부위탁 사업, 중간부분이 밝은 노랑색은 한일경제협회 사업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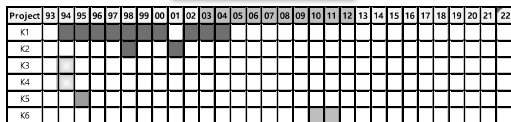
각 사업군 개별사업의 전개과정 (3)

<무역 및 투자협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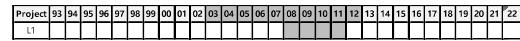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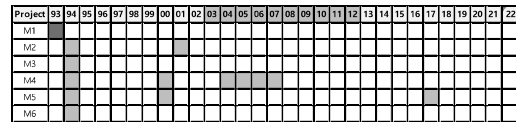
투자유치 사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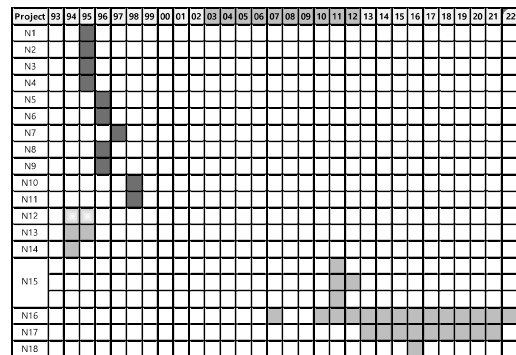
일본내 거점 운영 사업군



각종 세미나 사업군



조사 및 연구 사업군



주: 짙은 파랑색은 외부위탁 사업, 중간부분이 밝은 노랑색은 한일경제협회 사업

21

4. 한일협력사업의 향후 방향

한일협력사업의 트렌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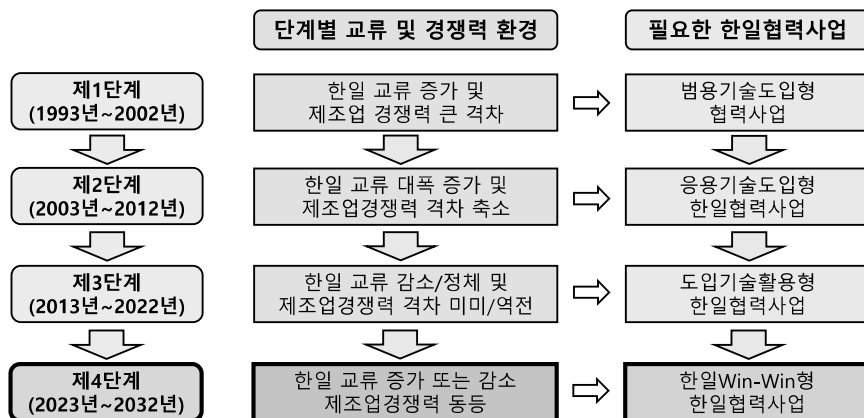
- 한일재단은 설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특히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옴
 - 기술협력 관련 사업들이 전체의 61.8%를 차지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재단 사업의 핵심 분야는 기술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한일재단의 이러한 사업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재단사업이 시작된 1993년에는 CIP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지수 관점의 제조업 경쟁력에서 일본이 1위, 한국이 12위일 정도로 한일간에는 큰 격차 있었지만, 이후 그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음
 - 이러한 격차 해소에는 재단의 한일협력사업이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제3단계에는 한일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협력 관련 한일협력사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재단의 사업내용은 도입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
 -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
 - 한국 기술자의 일본현지 연수는 어려워지고 일본 현지기술자의 한국 기업 기술지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한일재단은 새로운 방향의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22

한일협력사업의 향후 방향

- 향후 한일협력사업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1, 2, 3단계에서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부터 한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
 -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4단계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은 동등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한일협력사업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일Win-Win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향후 한일협력사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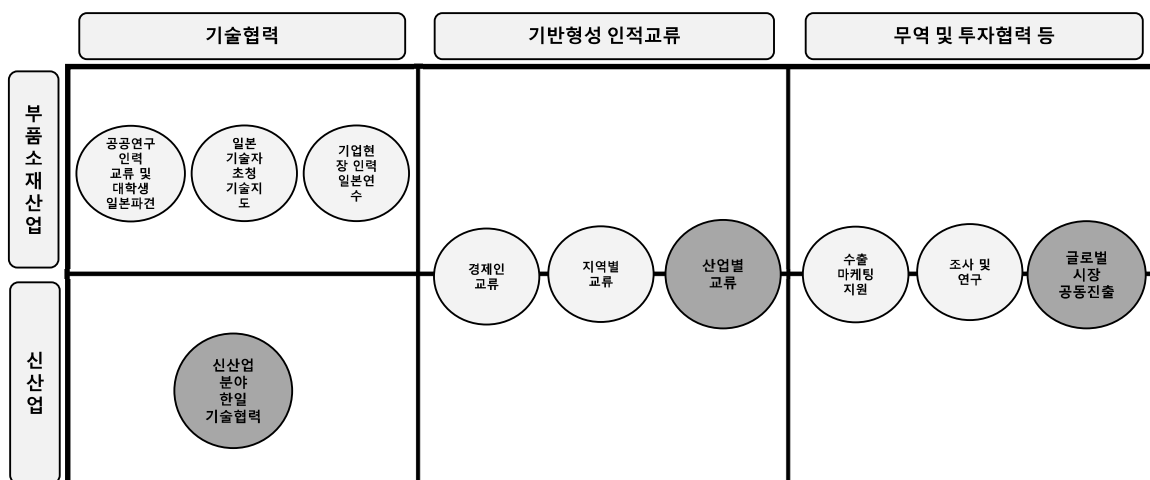


23

향후 한일협력사업의 제안 (1)

- 향후 한일협력사업으로서 중분류 기준 3개 사업군을 제안할 수 있음
 - 매트릭스의 횡축은 대분류 기준의 분야를, 종축은 산업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 한일협력사업의 제안 개념도



주: 전체 14개 사업군 중 2019년~2022년 실적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군 즉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군은 위 7개임

24

향후 한일협력사업의 제안 (2)

① 신산업 분야 한일기술협력 사업

- 한국은 최근 IT, 소프트웨어, 신에너지 등 신산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기업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수소, 원자력), 반도체,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의 협력 공급망 구축 및 강화

② 산업별 교류 사업

- 한일재단은 개별산업의 협회, 진흥회 등 한일 협단체 사이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산업별 교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임

③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사업

- 국내시장 성장이 한계에 달한 한일기업 경우에는 해외시장 즉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5

참고: 에너지 분야 한일협력 – 한국중부발전 사례

①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 인도네시아 짜레본 발전사업
 - ✓ **중부발전**은 지난 2006년 삼탄, **일본 마루베니 상사**, 인도네시아 인디카 그룹과 함께 국제컨소시엄을 구성,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본 사업을 수주
- 베트남 반퐁 O&M 발전사업
 - ✓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탄중자티 발전소 운영정비를 통해 **중부발전**의 우수한 발전소 운영정비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스미토모社(사업주)**와 수행하는 운영·정비 사업



② 신산업(신에너지) 분야 한일기술협력

- 한국(한국중부발전) → 일본(관서전력(關西電力)/IHI)
 - ✓ 한국 발전기자재 회사가 일본 쪽에 기자재를 공급 희망
 - ✓ 중부발전이 SK그룹과 공동 추진 중인 세계 최대규모 블루수소 Value Chain 구축 사례 공유 등 신재생발전 분야 간사 이전력과 기술 교류 등
- 일본(JERA, 헤키난(碧南) 화력발전소) → 한국(한국중부발전)
 - ✓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 분야의 벤치마킹 및 향후 기술제휴 등



26

Thank You !

hyungoh@sookmyung.ac.kr

한일 상호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23년 5월
서울재팬클럽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사장
이구치 카즈히로

오늘의 강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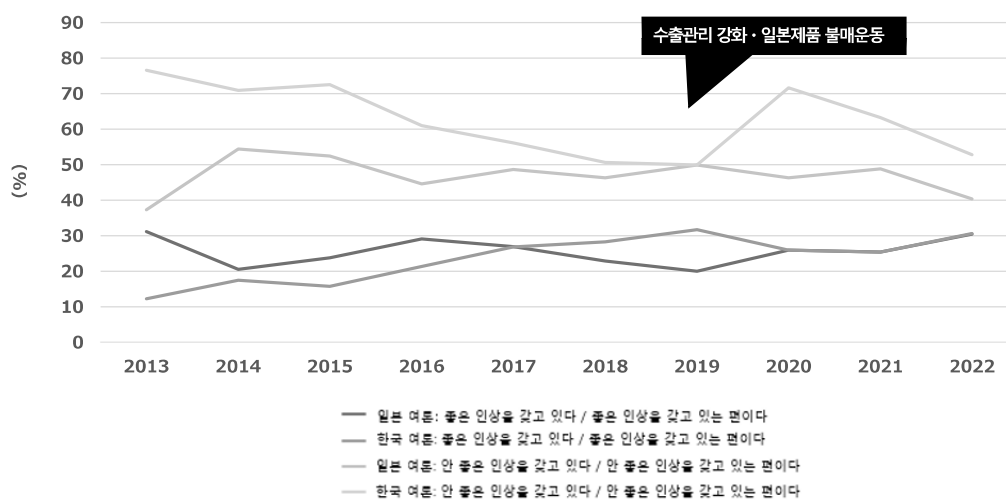
1. 한일 상호교류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2. 한일 상호교류 ~경제계 공헌~
3. SJC 활동 소개

한일 상호교류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3

한일 공동 여론조사 「상대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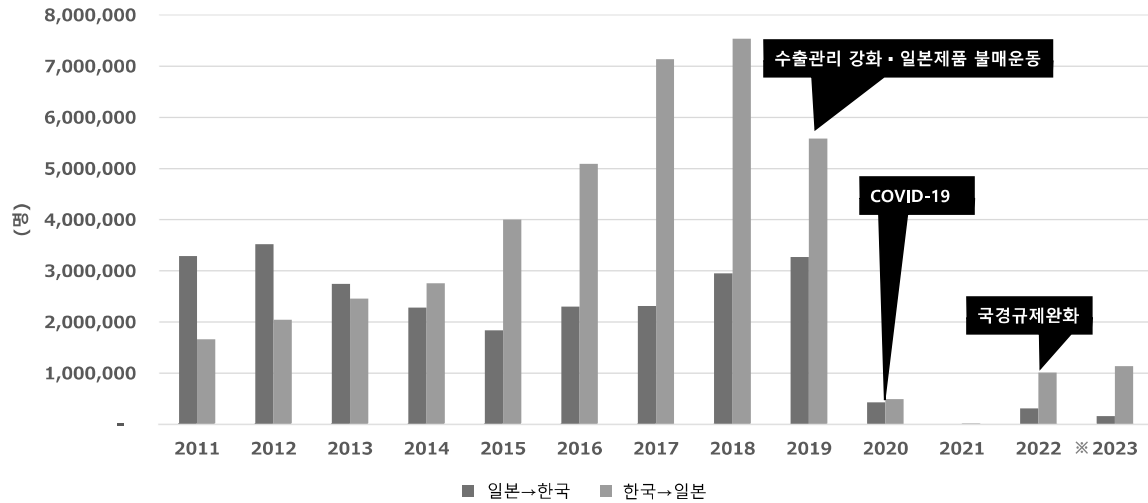


출처) 제10회 한일공동여론조사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

4

양국간 방문자 추이 데이터

※ 2023년은 1-2월 누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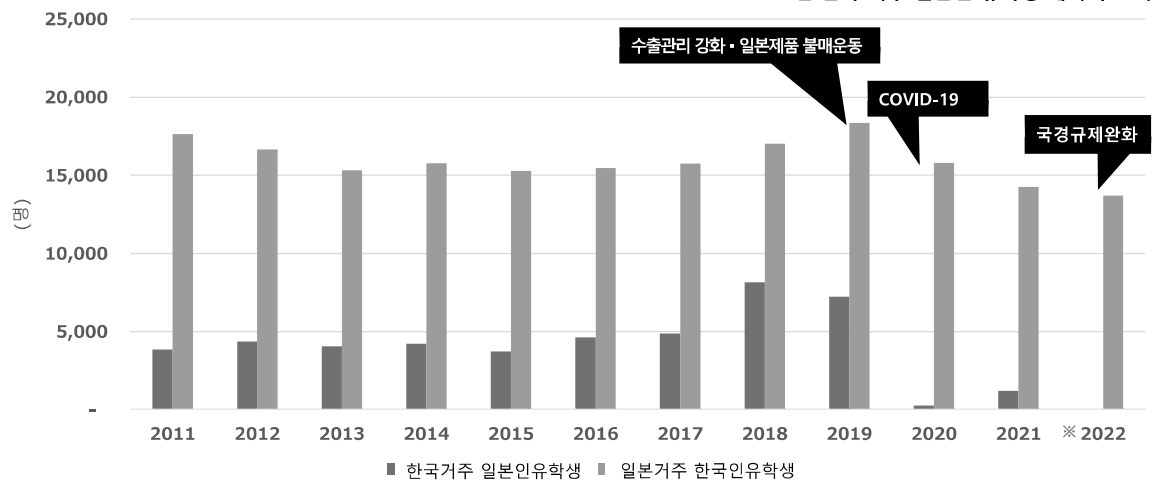


출처) 일본정부관광국/한국관광공사

5

양국간 유학생 추이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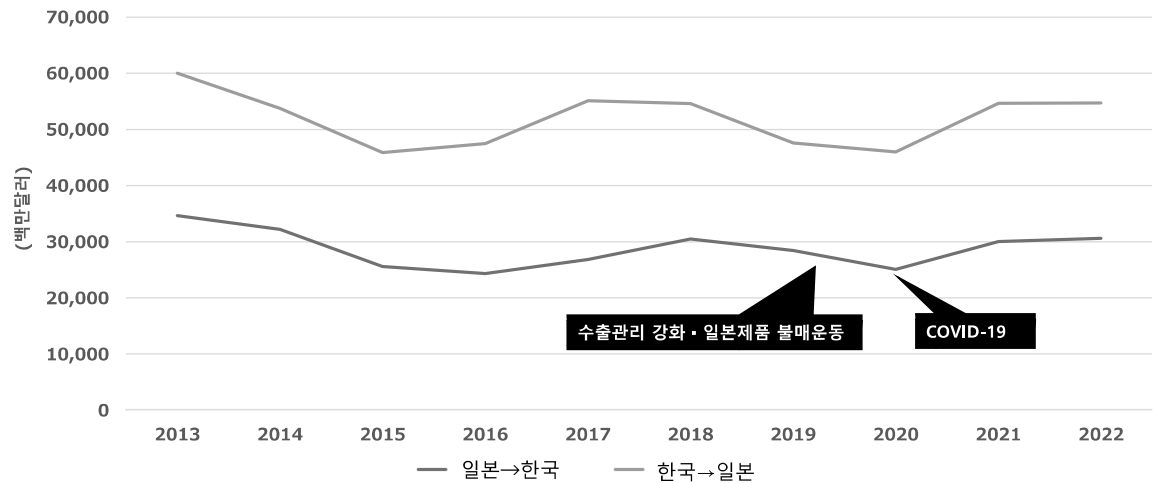
※ 2022년 한국 거주 일본인 유학생 데이터는 미발표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6

한일 무역액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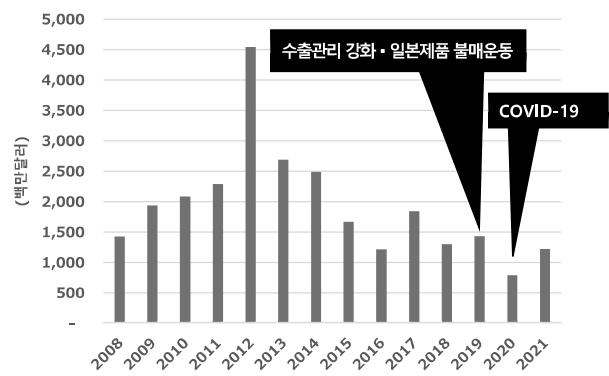
한국의 직접투자 유입

국가별 직접투자 유입 상위 10개국
(1962~2022년 누계)

순위	국가	금액(백만달러)	비중
1	미국	42,645	15.6%
2	일본	36,290	13.3%
3	네덜란드	33,686	12.3%
4	싱가포르	22,888	8.4%
5	몰타	18,203	6.7%
6	영국	17,180	6.3%
7	독일	13,735	5.0%
8	케이맨제도	10,170	3.7%
9	홍콩	9,247	3.4%
10	중국	7,076	2.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액 추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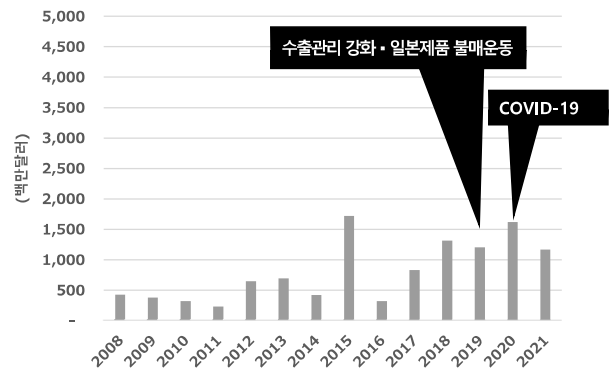
일본의 직접투자 유입

국가별 직접투자 유입 상위 10개국
(2021년말 현재)

순위	국가	금액(억엔)	비중
1	미국	77,227	28.4%
2	프랑스	29,151	10.7%
3	싱가포르	29,111	10.7%
4	홍콩	24,354	9.0%
5	네덜란드	20,798	7.7%
6	스위스	17,037	6.3%
7	케이맨제도	15,097	5.6%
8	영국	15,067	5.5%
9	한국	9,220	3.4%
10	대만	8,156	3.0%

출처) 일본은행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액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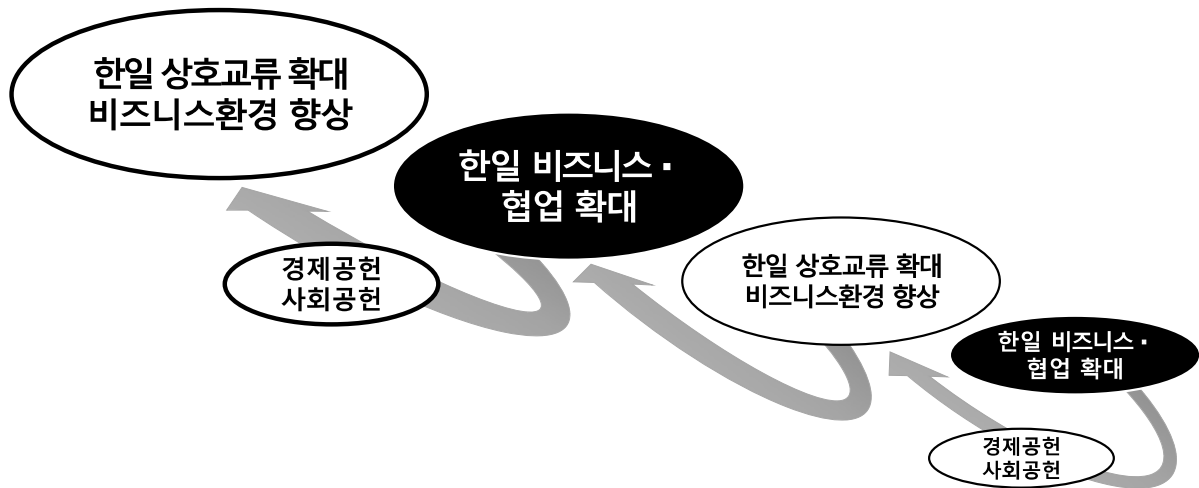
9

한일 상호교류

~경제계 공헌~

10

한일 비즈니스 · 협업 확대 및 한일 상호교류 확대



11

한일 비즈니스 · 협업 확대 및 한일 상호교류 확대



공급망



탄소중립



한일 소비문화



사업환경 개선



사회공헌

12

SJC 활동 소개

13

서울재팬클럽 (SJC)

1997년 3개의 일본계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 최대의 일본계 공동체

일본인회 (1966년 설립)

일본상공회 (1967년 설립)

JV회 (1972년 설립)



【회원 수】
법인 약 350개사
개인 약 1,300명

【활동 목적】

- 회원 상호 친목 및 계발, 복지 향상
- 한일 양국의 친선, 한국사회 공헌
- 한일 양국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 지원

【개인활동 지원】

- 안전대책
- 일본인학교운영 지원
- 한일교류 지원 · 협력
- 자원봉사활동
- 교양문화세미나
- 명승지 탐방
- 문화행사 · 스포츠대회
- 공인클럽활동



【법인활동 지원】

- 회원기업간 정보교환 · 간담
- 한국정부에 건의사항 제출
- 각종 세미나 · 스터디
- 각종 정보 · 자료 제공



14

SJC의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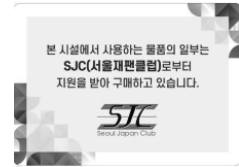
- 노인요양시설 경주 나자렛원
- 아동복지시설 목포 공생원
- 꿈이있는마을
- 등명아동복지센터
- 혜심원
- 강남구가족센터
-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사회공헌활동

- 이촌동 청소활동(2020~22년에는 중단, 23년부터 재개 예정)
- 복지시설아동 일본계기업공장 견학(2020~22년에는 중단, 23년부터 재개)
- 복지시설아동 연극감상 초대(2020~22년에는 중단, 23년부터 재개)
- 지원처 방문

일본계기업CEO 강연회(2022년 실적)

- 고려대학교(도레이첨단소재)
- 가톨릭대학교(한국요코가와전기)
- 한국외국어대학교(도레이첨단소재)
- 성결대학교(마이나비코리아)



15

SJC의 한일문화교류 지원 활동

【후원 · 협찬사업】

-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 (국제교류기금)
- 전국 중 · 고등학생 일본어학력 경시대회 (한일협회)
- 한일 청소년교류회 (한일협회)
- 전국 대학생 일본어 번역대회 (한일협회)
- 일본 유학 & 취업 페어 (한일협회)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 한일포토콘테스트 (일본대사관)
- 한일공동세미나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JETAA 대한민국 지부)
-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한국대학생 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 한일문화교류공연 (한일문화교류회의)

16

SJC 회원기업의 인턴 수용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2019 년도	2020 년도	2021 년도	2022 년도	합계
수용기업	14개사	9개사	28개사	31개사	32개사	21개사	19개사	22개사	총176 개사
인턴 실습생	20명	16명	51명	50명	55명	34명	35명	49명	310명

현재까지 100명 이상 일본계기업에 취업

17

감사합니다



18

第55回 韓日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23年 6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徐 錫 崇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06059 서울特別市 江南區 宣陵路 131길 18-4
(韓日財團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www.kje.or.kr